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5 5 | 6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회의집 2층 (우) 120-012

☎ | 0505-362-8568 FAX | 0505-362-8569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바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법률 104 호 2005년 05/06 일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

펴낸이 서은희 | 뭉은이 이강선주, 류지민, 이성봉, 김희정

펴낸날 2005년 5월 14일

2	여는 글	새롭고 상큼한 평등의 봄빛을 우리의 가족에게	김기선미
4	보육정책		편집부
	보육활동		
8	아동교육	보육시설 학부모 상담(정기 개별 상담) 준비	조선경
16	안전교육	가르치는 것과 아동인권 침해의 딜레마(1)	서정은
22	평등 7개항 보육기	너희들도 나도, 산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평등어린이집
27	좋은 그림책소개	나와 타(타치·물루·아델라라 할머니의 정원)	이지영
31	그림책을 읽어주고	새 살 아이와 그림책 보는 재미	김진숙
33	상업원의 디테와리 보육	혼합연령 보육의 시작..공터의 기억으로부터..	상업원·정의 편집부
49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고정미
54	함께 생각해 봅시다	"동생을 보았을 때" 부모님들께	윤선영
	아이들과의 하루		
60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포구나무아이들의 세상	포구나무
62	보육교사일기	어수선한 3월! 나도 적응기간	이성봉
65	육아일기	과충우를 늦각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제5탄	김수연
	만나고 싶었습니다		
68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가 심영 선생님		류지민
	중앙활동		
70	활동보고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회의진행 외	편집부
	세상읽기		
74	말아몬, 초원이가 남들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이경아
	특별기고		
76	어린이집의 CCTV, 무엇이 문제일까?		김희희
	기타소식모음		
79	알림란		
84	보육계 풍향		
86	소식과 소식		
88	후원에주셔서 감사합니다		
89	편집후기		

새콤 상큼한 평등의 봄빛을 우리의 가족에게

김기선미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더디오는 봄을 기다리다보니, 어느새 5월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 며느리라는 신분이 되고 보니 가정의 달 5월이 그리 편치만은 않게 느껴진다. 어느 달 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시기에다가, 시댁이며 친정이며 부모님부터 어린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날에 꼬박꼬박 가족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표현 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마 그래서 여성연합 사무총국 활동가들 사이에 명절 이외에 가족 일과 관련되는 이런저런 수다가 늘어나는 때가 바로 5월이 아닌가 싶다.

진보적 여성운동체라 자임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과 운동을 다루고 있는 사무총국 활동가들이지만, 생활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결국 가족과 연관된다.

도대체 여성운동가와 결혼하는 남편들은 얼마나 진보적일까 생각하겠지만, 사실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보면, 도대체 어떤 용기로 우리 같은 여자와 결혼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물론, 그나마 겁도 없이 우리 같은 여자들과 결혼한 탓에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가사분담을 더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 멀고도 먼 가사분담이다. 명절이면, 의례 상차리기는 며느리의 몫이 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오면, 여성운동가인 내가 이렇게 순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가라는 자책감이 물려오곤 한다. 명절 후 그 쓰린 가슴을 활동가들과 함께 끌어내리며 참 여성운동이 할 일은 멀고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론 그 분노만큼 투쟁의 의지가 불끈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끼곤 한다. 사실, 참 씁쓸한 일이다.

가족 내 불평등 문제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 하여도 끝까지 남을 가부장제의 최후 보루가 아닐까라는 생각한다. 법이나 제도처럼 여러 사람들과 길거리에 모여 으샤 으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랑과 책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속으로 숨어버리는 불평등의 문제를 각각의 가족 속에서 혼자 대면하며 싸

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저항의 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 바로 가족 문제이다.

여성연합은 가족 내 성 불평등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고리 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잡았다. 남성이 가정을 대표한다는 의식, 그래서 가장인 남성에게 대한 존경, 우대가 가족의 주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의식에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호주제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호주제를 폐지시킴으로서 가부장적인 가족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젠 이 균열을 계속 확대시키기 위해 평등가족 만들기 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첫 번째의 일은 여성들이 가족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살핌과 돌봄'의 일을 제도적으로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는 일이다. 바로 '가족지원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수발 노동에 대한 지원과 전문보호시설 확대, 공적 복지서비스 시설 확대 및 이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긴급지원을 요하는 위기가족에 대한 인력 및 자원 확보 등 적극적 조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국가의 가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가족 내에서 여성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사회가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 내 평등한 역할을 만들기 위한 의식 개혁 운동이다. 사실의 식개혁이라는 것이 캠페인 몇 번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매체를 통해 가족 내 남성 역할,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모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여성운동도 지역운동을 통해 평등 가족이 생활 속으로 뿌리내리도록 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성들의 개별적인 실천이다. 일단, 주변의 다양한 가족(이혼, 사별, 재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동성가족, 독신가족 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기, 그리고 가족 내 불평등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기, 주변의 여성들과 가족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하기, 가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가족을 넘어서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등은 평등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운동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 5월이 모든 여성들에게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찬 봄 기운 가득한 달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육예산에 대한 국가정책발상의 전환 필요

편집부

지난 5월 4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제1차 육아지원 방안의 성과와 평가를 점검하고, '2004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제2차 육아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합의가 미흡하여 공식발표가 연기되었다.

미발표된 육아지원방안에는 국공립확대설치에 대한 미온적 계획과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 시설 허용'이라는 보육료자율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있다.

한국보육교사회를 포함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일뿐더러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보편적 서비스 영역이다."임을 확인하고,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예산현실을 앞세우는 논리와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1)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육아비용 중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현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70% 수준까지 이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1.5%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황을 지적하며, 지속적 확충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래위의 제2차 육아지원 보고서 중에서는 육아비용 상한선 규제를 풀고 대신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보육료 자율화' 방안에 대해 "모영유아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연령과 발달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보살핌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주장하며,

3) 보육료 자율화가 도입 시도는, 아동의 기본권이 소득수준 차이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화되고, 왜곡된 조기교육의 열풍에 휩싸이면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보육료 자율화 도입 논의의 즉각적 종단을 요구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상/ 가나다순)

〈기자회견문〉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사회 도래,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가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4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제1차 육아지원방안의 성과와 평가를 점검하고, '2004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제2차 육아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성·노동·시민단체는 부처간 합의가 미흡하여 공식발표가 연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육아의 사회적 지원은 미래세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아동이 시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는다. 특히, 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선택되고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복리를 보장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은 총 육아 지원 비용 중 정부재정 부담률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대변하듯,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취약하다. 정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정책성과는 여전히 미미할 뿐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54.1%의 부모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부모가 느끼는 보육료 부담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공립 시설비용 5%는 부모의 육아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총 육아비용 중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현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70% 수준까지 이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예산현실을 알세우는 논리와 소극적 태도를 단호히 비판한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일뿐더러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보편적 서비스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이며, 막대한 육아비용 지출 부담을 가계에 전가하겠다는 논리이다.

2. 정부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조정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2차 육아지원정책 보고서는 미래위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사전 조정등을 통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자원조달방안, 보육료 자율화 도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발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미래위,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이 크다. 국가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석상에서의 보고와 발표를 앞두고 마땅히 이를 원활하게 조율해야 할 여성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등 관계기관 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의 실패와 한계에 대해, 오는 6월 임시국회의 업무보고 시 국회가 반드시 이를 짚고 넘어갈 것을 요구한다.

3.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보육료 자율화) 허용 논의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미래위의 제2차 육아지원 보고서 중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가격방식이 차이가 존재하고 고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육아비용 상한선 규제를 풀고

대신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보육료 자율화' 라고 하는 이 같은 방안은 그간 경제부처와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과제보고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제부처와 일부 경제학자들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적 목표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영리법인의 육아지원시설 참여 허용과 육아비용 상한선 폐지에 있다.

그러나, 모든 영유아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연령과 발달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보살핌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료 자율화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본권이 소득수준 차이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화되고, 왜곡된 조기교육의 열풍에 휩싸이면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호주에서 육아비용을 자율화한 이후 영리법인이 육아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육아비용이 10년 사이에 400% 이상 인상되었던 사례를 볼 때,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2003-2004년 유치원 수업료 자율화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 향상 효과는 불분명한 채, 비용만 상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육료의 전반적인 상승은 많은 여성들이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육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모색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4.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1.5%에 그치고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 500여개 읍·면·동에 국공립시설이 한 개도 없다고 조사되었다. 국·공립시설은 농어촌 취약지역과 특수보육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 최소한 골고루 설치해야 한다.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아동 수 대비 50% 이상의 국·공립시설 확대를 촉구한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공공 전달체제를 일정한 비중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준의 국공립 시설 비율이 충족될 때 보육정책은 시장의 이익추구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10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보육시설 학부모 상담(정기 개별 상담) 준비

조선경 · 본회 교육위원, 이웃사랑어린이집 시설장

해마다 4,5월이면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인 상담을 하게 된다.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상담은 즐겁고 기다려지는 일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는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이며, 가정은 아이가 자라나는 일차적인 환경이기에 학부모와의 상담은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아이, 부모, 교사 모두에게 유익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상담은 심리상담이나 정신분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중심에 놓고 양육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가정과 보육시설의 부모와 교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엄격하게 보면 '상담'이라기 보다는 '면담'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교사가 굳이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더라도 학부모와 성공적인 면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고 아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상담을 마쳤다면 '성공적'인 상담이라고 하겠다.

1. 왜 정기 상담을 하는가?

정기적인 상담을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부모의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또 부모는 자녀가 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래관계는 어떠한지, 인지발달을 비롯한 발달 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한다.

또 원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통해 기관과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이 아동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잘 말아서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신뢰감과 보육에 대한 기대감을 부모에게 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의 욕구가 잘 표현되고 존중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우리 원에서는 상하반기로 일 년에 두 번(4월말과 11월 중순)의 상담을 한다. 상반기에

는 개별면담으로 진행하는데 교사는 아이들 맡은 지 한 두 달 밖에 안 된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의 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려하기 보다는 아이가 자라난 환경, 아이의 가족, 형제관계, 성격, 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부모님께 듣는 것을 위주로 한다.

하반기 상담은 소그룹으로 하는데 이 때는 개별 아동에 대한 발달 영역별 평가를 기초자료로 제시하며 같은 반의 대 여섯명의 부모가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대개 연말이 되면 부모님들은 재원을 염두에 두고 다음 학년에 상급반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를 궁금해하므로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린다.

이 글에서는 상반기의 개별면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2. 상담의 준비

1) 아동에 관한 자료 수집

-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놀이를 하고 누구와 놀며,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아동발달체크리스트나 일화관찰기록 등 아동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 아동에 관한 기록 사항, 즉 생활기록부, 입학원서, 건강기록부 등을 미리 읽어서 가족사항이나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상담에 들어간다.
- 아동의 작품이 교실이나 복도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모님이 보실 수 있도록 대상아동의 포트폴리오나 스케치북, 파일 등을 미리 챙겨서 둔다.

2) 안내지 발송

상담을 할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해서 알리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보낸다. 특히 연락 없이 안 오거나 시간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초대장 형식으로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도 좋다.

3) 상담 장소 준비

교실이나 상담할 장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한다. 낮은 책상에 앉아야 할 경우 미리 방석을 준비한다. 간단한 음료나 차 한 잔, 꽃 한 송이 정도 마련하면 분위기를 산뜻하게 할 수 있다.

4) 교사의 복장

교사는 가능한 깔끔한 캐주얼 정장을 입도록 한다. 앞치마는 벗는다. 학부모 상담 시 약간은 공식적이고 준비된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상담을 할 때

1)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는가?

-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자녀의 발달상태, 성격 등에 대하여 교사에게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또는 혹시 자기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 자녀는 잘 키웠다는 인정을 교사로부터 받고 싶은 욕구도 있다.
- 담임교사가 자기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은 담임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2) 교사는 어떻게 상담에 임해야 하는가?

①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상담을 주도하라.

학부모가 교사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이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교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의 자신감은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등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가능한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호자에게 설명해주도록 한다.

무엇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가, 혼자 먹을 수 있는가와 같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은 부모들의 기본적인 관심사이므로 미리 챙겨두어야 하고 이 외에도 친구관계, 성인 교사와의 관계, 어린이집 규율규칙을 지키는 것, 인사, 예절, 기본생활습관, 놀이, 학습, 영역별 발달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② 상담의 기본은 잘 듣는 것이다.

상담을 할 때는 잘 듣는 것, 즉 "경청"이 중요하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부모는 듣는 상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듣고자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공감'이 형성된다. 즉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공감은 친근함을 표현하거나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데 공감이 형성되면 서로가 받아들여졌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교사는 아동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가정에서는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가족관계나 가족의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듣고 파악해야 한다. 그 아이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 가정 안에서 자라왔음을 상기하라.

③ 여유롭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모든 부모가 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간혹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 불신을 내보이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교사는 같이 긴장하고 방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어머니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이구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학부모 한 명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게 확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학부모의 경우 확실하게 교사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을 기회로 이용한다.

④ 비판하지 말고 부모를 존중하라.

교사는 학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사가 보호자에 대해 적극적인 경청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수용하며, 보호자의 긍정적인 부분을 일깨우고 전달하는 것, 지지하는 것 등도 모두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의 행동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라고 확인시켜주며 긍정적인 재해석을 해주는 것도 좋다.

교사가 보기에 잘 못 되어 보이는 학부모의 행동이나 자녀양육방식이 있더라도 부모의 경험과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기 때문이다. 비판적이고 지시적인 말, 충고 등은 상담을 할 때 피해야 할 것들이다.

⑤ 아동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라.

교사는 상담 중에 아동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 내 아이가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확인하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애정은 교사의 세심한 눈으로 파악한 아동의 일상이나 행동에서 드러난다.

남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창의력을 가졌든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있든지, 꼼꼼하고 자신의 일을 책임있게 완수한다든지, 말을 조리있게 잘 한다든지, 식사습관이 바르다든지 하는 아동만이 가진 장점들을 꼭 집어서 언급해준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칭찬이나 입에 발린 "참 예뻐요, 너무 잘해요"라는 말은 오히려 불신을 줄 수 있다.

⑥ 아동의 문제나 악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분리불안이나 산만함, 학습지체, 혹은 행동 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부모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부모 자신이 공격이나 비난을 받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동의 문제를 숨기고 알리지 않는 것도 교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

부모도 아동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므로 아동의 강점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한 후에 이 문제를 꺼낸다. 이때는 완곡하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안 돼요”라는 말 보다는 “—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면은 조금 더 길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4. 마무리

보육은 돌봄이며 만남이다. 학부모와 상담하는 자리 또한 이 만남의 연장이 된다.

상담을 교사로서 내가 평가받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에 두고 그 아이의 가정, 부모라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술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웃사랑이집에서 사용하는 관찰 기록지]

영동 발달 관찰 기록지 (6세)

관찰 아동		생년월일	
반명		관찰자	

3-잘함 2-보통 1-부족

영역	내 용	1학기	2학기
기본생활습관	1.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장난감, 작업, 간식, 책상)		
	2. 간식/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3. 규칙(차례, 약속)을 잘 지킨다.		
	4. 어른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5.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6.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 쓴다.		
	7. 고마워, 괜찮아, 미안해 등의 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8. 화장실 사용 후 뒷처리를 혼자 한다.		
신체발달	1. 자세가 바르다(앉을 때, 걸을 때, 서 있을 때)		
	2. 행동이 민첩하다.		
	3. 바깥놀이에 활발히 참여한다.		
	4. 한 발로 정중 뛰기를 할 수 있다.		
	5. 공을 던지고 받을 수 있다.		
	6. 그네를 혼자 구를 수 있다.		
	7. 매트에서 구르기를 할 수 있다.		
	8. 손사용에 있어서 선호도를 보인다.		
인지발달	9. 손잡이나 병뚜껑을 쉽게 돌린다.		
	10. 주스나 우유를 흘리지 않고 따를 수 있다.		
	11. 지퍼와 단추를 열고 잠글 수 있다.		
	12. 가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자를 수 있다.		
인지발달	1. 질문을 많이 한다.		
	2. 사물을 주의 깊게 본다.		
	3. 상식이 풍부하다.		
	4.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영역	내 용	1학기	2학기
인 지 발 달	5.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계절, 낮과 밤, 날씨, 동·식물의 변화)		
	6. 기본도형과 색깔의 이름을 안다.		
	7. 사건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8. 사물을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분류한다.(색, 모양, 크기)		
	9. 20 까지 합리적인 수세기를 한다.		
	10. 하루 일과의 순서를 안다.		
	11.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		
	12. 사물의 수량이 많고 적음을 보고 변별한다.		
	13. 일대일 대응으로 두 집단의 수를 짝 짓는다.		
	14.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수의 활용에 관심을 갖는다.		
	15. 자신을 중심으로 위, 아래, 앞, 뒤를 구별한다.		
언 어 발 달	1. 주의 깊게 듣는다.		
	2. 기초적인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3. 분명한 발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4. 상황에 따라 알맞게 말할 수 있다		
	5.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말할 수 있다.		
	6.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 내어 이야기를 한다.		
	7. 교사가 나타내는 신호나 지시에 따른다.		
	8. 읽어준 이야기를 이해하여 순서대로 말한다.		
	9.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다.		
	10.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 책을 읽는다.		
	11. 책읽기를 즐겨 한다.		
	12. 자기 이름과 간단한 글자를 쓴다.		
	13. 용품(크레파스, 놀잇감)이 없을 때 같이 쓰자고 말할 수 있다.		
자 기 정 체 성	1. 교사의 권유 없이 활동을 스스로 선택해서 논다.		
	2.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한다(집중력이 있다)		
	3.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보인다.		
	4. 자기가 시작한 일은 끝마친다.		
	5. 언어와 행동이 늘 긍정적이다.		
	6. 자신의 작품에 대체로 만족한다.		

영역	내 용	1학기	2학기
사 회 정 서 발 달	1.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2. 새로운 환경이나 교구에 흥미를 보인다.		
	3. 감정이 쉽게 바뀌는 편이다.		
	4.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5. 놀이에서 주로 지도자 역할을 한다.		
	6.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든다.		
	7.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말로 해결한다.		
	8. 다양한 놀이에 참여한다.		
	9. 친구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10. 친구와 나누어 쓸 수 있다.		
	11. 친구에게 양보 할 줄 안다.		
	12. 놀이나 작업을 할 때 협동을 잘한다.		
	13.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표 현 력 과 창 의 력	1. 악기를 연주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3. 독창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시도한다.		
	4. 역할 놀이에 맡은 역할을 잘 해낸다.		
	5. 놀이의 주제를 다양하게 선택한다.		

총 평	
--------	--

가르치는 것과 아동인권 침해의 딜레마 (1)

서정은 · 본회 전문위원 숙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은입니다.

황사가 심했던 4월이었습니다. 야외활동을 계획했다가 황사 때문에 연기한 어린이집. 놀이방이 많았을 것 같네요. 얼마 전,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황사가 심하다는 소식에 봄 소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소풍 하루 전날 내린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당연하게도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큰 아이부터 둘째 아이까지 몇몇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운데, 아동을 중심에 두고 행사나 활동을 고려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행사나 활동은 부모나 아동의 바램보다 이미 짜여진 연중 스케줄표에서 정한대로 이뤄졌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미 예정된 일이니 강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중간에 일정을 변경한 조치에 많은 부모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가르치는 것과 아동인권 보장간의 딜레마'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려합니다.

최근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8세, 9세 두 자매를 체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가던 네 티즌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사진¹⁾은 여아의 머리에 난 상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상에서 아동의 인권침해를 놓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여론이 빗발쳤구요. 인터넷의 불같은 여론으로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물론이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진땀을 빼며 당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인천의 00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상황인데,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지도에 '신체적 처벌'이라는 방법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가게에서 외상으로 빵을 사먹은 두 자매를 어린이집 원장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처벌입니다. 그렇기에 인천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행위'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군요.

1) 네이트닷컴, 2005. 4.11게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노력해 온 대다수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1. 일반인이 왜 흥분하는가?

성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교육적인 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해서라도 그리하겠다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물론 교육계에서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구 사건은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으로 체벌이 용납되고 인정되었던 공간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가정이나 학교와 달리, 보육시설은 아직 색다르고 낯설은 공간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일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에 비해 문턱이 낮은 공간입니다.

가정내 아동사건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데다, 남의 집 가정사 관여의 측면에 국한되어 어찌할 수 없는 미비한 법적 체계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학교는 관료화된 구조와 체계가 교권이라는 법적인 권위와 동반하여 문턱을 높여놨기에 일반인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공적 체계인 학교와 사적 양육체계인 가정의 중간단계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정 내 아동 폭력, 학대나 학교에서의 관습적인 체벌에 대한 비판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하고 흥분하는 이유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력어린이집', '원장에 구타당한 명투성이 아이' 등의 기사로 야기된 불신은 '보육시설에서 수면제를 먹여요' 등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의 게시물에 눈길을 모읍니다.

이는 2002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학대 2946건 중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의 폭력이 213건이라는 발표에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판단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되는 선에서 끝나는 실정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육시설 내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을 위해 당연시되었던 행위나 업무 중 일부를 아동학대 사안, 아동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2) 조선일보 2005. 4.12

3) 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1391.or.kr> 사이트, 2005. 4. 19 게시

4) 대한매일 2003. 11. 17

또한 학교 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등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주목이 앞으로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육시설내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의 논란을 단순히 일부의, 한시적인 문제제기로 받아넘기기 어렵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2.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대할 때, 그것은 아동인권에 무지하고 몰상식한, 극 소수의 원장과 교사의 자질 문제라고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중 극히 일부의 문제요, 나와 내 시설에서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일일이 댓글 달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질 낮은 일부 보육시설의 원장에서 비롯된 개인적 가치관이나 교육관,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나 일반인의 '보육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무지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분풀이나 오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일반인 700명, 전문가 303명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88%, 보육전문가의 91.4%가 "주변에서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을 찾을 수 없다"고 불만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시설들 대부분이 언제든 아동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불만은 언제든 불거져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나와 내 시설은 무관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보육계 전반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일부 보육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계 전반에 대한 책임으로 분명히 인식하는게 필요합니다. 보육시설 내에서 원장과 교사, 학부모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육시설이 학교인가?

앞서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 나오거나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육계 사람들의 심기는 매우 편치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직업적인 자긍심이나 사기저하라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애써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은 상상치 못할 정도로 보육계 종사자들의 속마음은 착잡합니다.

5) 연합뉴스 2004.5.21

보호, 교육의 업무는 물론,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진 자가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데서 오는 '존재의 혼란'입니다. 지난 해 '보육교사 인권교육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자신을 아동인권의 옹호자이자 가해자라고 인식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라는 제도교육이 가진 습성을 큰 고민 없이 보육시설이 이어오는데 있습니다.

만인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수를 통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그런 체계는 많은 아동들을 수용하고 출석을 강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종의 구조와 조직을 불가피하게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 체벌, 벌, 자유와 권위, 그리고 적절한 사제관계에 관한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인천과 대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학교내 쟁점이 장소를 옮겨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결정 없이는 많은 아이들의 수에 비해 좁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야 하는 시간표와 일과구성을 지켜내기 위한 질서와 규칙이 강조됩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체계가 빈약한 상태에서 교사 중심의 보육프로그램과 활동을 합니다. 언어, 비언어적인 통제 메시지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은 잘 배우기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의 자유를 억제하도록 주문받습니다. 더러 말썽쟁이들에게는 타임아웃도 하고, 신체적인 벌도 주는 훈육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뭔가 많이 배워내야 하는 교육의 수혜자이자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때려서라도, 때리지는 않더라도 보육시설에서 '많은 가르침'이 이뤄진다면, 최근 체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학교내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훈육과 체벌, 인권 침해

훈육(discipline)의 라틴어 어원은 'disco'이며, '나는 배운다(I learn)'는 뜻입니다. 즉 훈육 받은 사람은 '배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훈육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규제와 통제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규범과 질서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6) 김정환(1982), 전인교육론, 세영사

흔히 첫 번째 의미가 훈육의 개념을 대표하며 학교 훈육(school discipline)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질서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통제와 규율과 같은 구속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규율과 규칙은 훈육을 통해 습득되어야 할 어떤 것입니다. 따라서 규율과 규칙은 훈육이라든가 벌(罰)이라는 행위를 칭하는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1) 언어에서의 문법규칙, 과학실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규칙, 수학 논리적 추리의 규칙 등과 같이 교과 자체에 관련된 규칙
- 2) 집중, 반복, 연습과 복습, 필기 등의 태도와 관련되는 학습 방법상의 규칙, 즉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과 관련된 규칙
- 3) 출석, 교정에서의 이동, 비상 조치 등과 같이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하게 해 주는 규칙
- 4) 차례 지키기, 정직, 남을 괴롭히거나 상처 입히지 않기처럼 3)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도덕적 특성을 띠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적용되는 규칙. 이는 단순히 학교를 운영하는데 편리한 것일 뿐 아니라, 도덕교육의 일부가 되는 좀 더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이러한 규칙을 지키도록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훈육 받게 되며, 훈육 없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벌은 위의 3), 4)의 규칙을 배우는 훈육과 관련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가, 벌 없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규칙을 배우게 되는 경로가 반드시 벌이 아니라는 거지요.

최근 일어난 일은 '외상으로 사먹지 말 것'이라는 규칙을 배우게 하기 위해 때리는 벌을 사용한 것(대구)이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규칙을 위해 수세미로 아동의 입을 문지르고 천 번 절하기라는 벌을 준 것(인천)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나 많은 보육시설에서 규칙을 배우게 하기 위해 벌을 사용하며, 이것이 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어도 맘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보육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학교를 이상향으로 여기고 달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더욱 완비하는 가운데 꼬맹이들을 어릴적부터 잘 훈육하도록 작은 학교 시스템을 갖추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교과운영을 통해 일반인과 부모들에게는 '권위를 지닌 선생님'으로 존경받길 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처럼, 우리들과 영유아의 관계가 본질적, 논리적으로 교육적 관계일까요? 그래서 원장, 교사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교육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다인수 학급에서 일어나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가진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일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은 학교인가요?

누가 제게 답을 좀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너희들도 나도, 신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자 애들아!

평동어린이집

3월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주는 달이기도 하지만 그 새로움에 적응하기 위한 얼마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함께 주는 달이기도 하다. 결원이 생길 때 수시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곳이 어린이집이라 특별히 입학의 의미가 크진 않다. 하지만 3월은 졸업생이 빠져 나간 자리에 새로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 지라 각 반별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적응하느라 조금은 어수선한 한 달을 보내게 된다.

올 해 진달래반(6.7세 혼합반)은 8세 1명(발달지체), 7세 1명(생일이 빨라 올 해 초등학교에 가야 했지만 입학 유예), 7세 11명, 6세 4명(생일이 빨라 내년에 입학예정), 6세 3명으로 한 반이 구성되었다. 2명만 빼고는 모두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라 적응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활하는 공간과 담임선생님이 바뀌었기에 아이들이나 교사나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 시간이 나름대로는 필요했다.

지난 2월 말 부모오리엔테이션 때 진달래반 연간 보육활동계획안을 설명하였다. 이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정리한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목표

- 아동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다
- 또래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 다양한 언어활동을 통해 문식성을 발달시킨다
- 관찰활동, 나들이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는다
- 옛노래, 놀이를 통한 전통문화 습득을 돕는다
- 양성평등 의식을 높인다

☞ 세부내용

1) 건강

- 건강한 신체발달을 꾀한다
-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 시킨다
-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의복을 착용 한다
-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 한다
- 눈을 건강하게 관리 한다
-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한다

2) 영양

- 영양의 중요성을 알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통해 최적의 발달을 이루고 건강을 증진 한다
-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 한다
- 식품이 생산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한다

3) 안전

-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넓히면서 안전생활 습관과 태도를 기른다
- 위험한 물건, 장소, 사람, 상황 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자율적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가정,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 한다
- 타인의 안전을 배려한다

4) 신체

- 몸의 균형을 잡는다
- 신체조정능력과 협응력을 기른다
- 집단놀이를 통해 기초적 운동수행능력을 세련되게 한다

5) 정서, 사회성

- 다양한 정서와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 한다
- 자율성과 자신감을 기른다
- 주변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천 한다
- 기본예절을 익히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환경보호 방법을 익혀 실천한다
-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6) 언어

-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발달시킨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상황에 맞게 표현 한다

- 주변의 글자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려고 노력 한다
-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몇몇 단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 경험, 느낌 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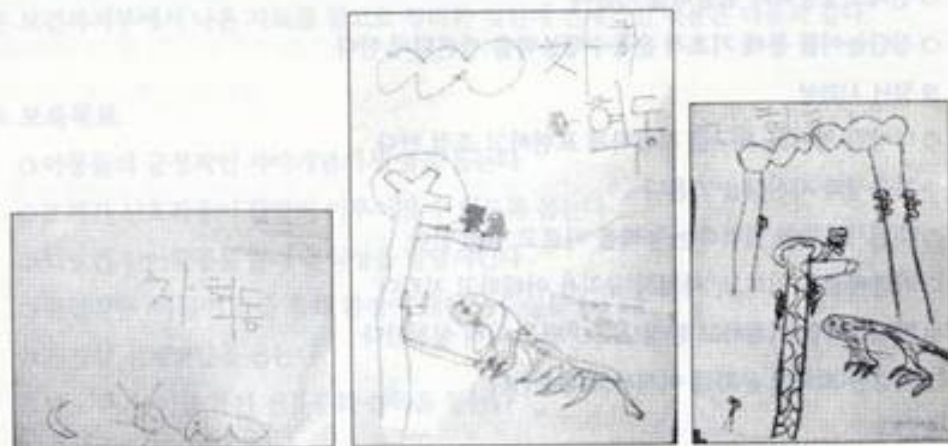
ㄱ 표현

-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탐색하고 이를 조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을 탐색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다

ㄴ 탐구

- 과학적 사고 주변 환경과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사고의 기초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논리, 수학적 사고 등 다양한 조작활동을 통하여 논리, 수학적 사고의 기초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창의적 사고, 과학적 논리 수학적 사고를 기초로 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보육목표와 세부내용을 근거로 연간계획안과 주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올 해 진달래반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옛이야기'이다.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옛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3,4월 두 달간 옛이야기를 듣고 그림그리기, 그림보고 이야기하기, 이야기 제목의 단어를 골라 낱말카드 만들기, 말잇기놀이 등 언어교육의 기본이 되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옛이야기를 통해 접근하였다.



(2월과 3월의 2주에 아이들을 듣고 나체관악사 3명의 그림을 그리다)

우리 아이들은 '줄넘기'를 참으로 즐긴다. 형겅과 지끈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길이의 끈을 가지고 실내, 외 가리지 않고 줄넘기를 하는데 6,7세 아이들이라 믿기지 않을 고난위도의 줄넘기도 척척 잘한다. 아이들은 줄넘기를 하면서 서로 몇 번을 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아이들이 세어야 하는 수의 단위가 올라가고 있다. 물론 아직 10을 넘겨 세기 어려운 아이들은 옆에서 우물우물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한다. 이럴 때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따라서 세기도 한다. 현재 줄넘기를 통해 아이들이 셀 수 있는 수는 62이다.



지난 주에는 '나무심기 어린이바자회'가 있었다. 바자회에서는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쿠폰을 발행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었는데 바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아이들 자신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값을 치르고, 거스름돈을 받고, 모자란 금액은 선생님에게 빌리기도 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간접체험과 쿠폰을 사용하면서 화폐의 양과 돈의 단위를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다.

교사주도 활동 외에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경험을 통해 수와 문자에 대한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역별 활동도 구성하였다. 그러나 학기 초이고, 또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영역 활동을 내용 있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은 만족할 만큼 진행하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기회가 된다면 자유놀이 시 아이들의 수, 문자 활동에 대한 관찰 일기를 써 보고 싶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이들과 '바느질'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집중력, 또 미적인 감각을 높일 수 있는 조각보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음 호 쯤에는 진행사항을 지면을 통해서 공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바느질 활동이 아이들의 수, 문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쓰기 활동은 관련이 있으므로 잠시 소개도 좋을 것 같다.(이 생각이 다음 호 글 쓸 때 달라질 수도 있음, 호호호)

6.7세 아이들을 돌보면서 늘 고민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가 아이들의 수·언어발달의 영역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맞춤법은 틀리지만 무언가 문자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는 수준, 자주 듣던 이야기책을 보면서 동생에게 자기 나름의 이야기로 각색하며 책을 읽어 주면 뿌듯해 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6.7세 아이들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부모님들은 글씨를 반듯하게 썼으면 좋겠다 한다.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었으면 한다. 하도 답답해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을 설명해 놓은 책도 보았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1학년 1학기 때 받아쓰기를 하고 한자를 외워 쓰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올 해도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지식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말이다.

(다음 호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재를 실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등이 아닌 다른 사실의 사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나와 타인

이지영 ·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티치뽀 허친스 글·그림/ 박현철 옮김/ 시공주니어

물루(그레고와르 솔로타레프 글·그림/ 최윤정 옮김/ 웅진닷컴)

아멜리아 할머니의 정월(릴리انا 스태모드 글/ 스티븐 마이클 킹 그림/ 정태선 옮김/ 국민서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과 함께 이웃, 유치원 등으로 생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어찌면 사람이 한 평생 해결해야 하는 숙제일 지도 모른다. 내 초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에는 나, 너, 우리 라고 맨 처음 써 있었다. 살면 살수록 그 단어들이 참 마음에 남는다. 나를 시작해서 남을 알아가고 또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림책 속에서도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가족과 동무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쌓아가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먼저 《티치》(뽀 허친스 글·그림/ 박현철 옮김/ 시공주니어)에서 귀여운 꼬마 티치를 만나보자. 빨랫줄에 나란히 걸린 커다란 옷 두 벌과 작은 옷 한 벌은 형, 피트, 누나 메리, 그리고 주인공 티치의 옷이다. 형과 누나는 티치보다 커다란 자전거도 타고, 연도 높이 날리고, 커다란 악기를 연주한다. 또 형과 누나는 커다란 삼과 화분을 가져왔지만, 티치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에서 나온 싹은 쑥쑥 자라나 형과 누나보다 더 크게 자란다. 이 이야기는 아주 작은 아이 티치와 그보다 조금 더 큰 누나 메리, 꽤 더 큰 형 피트의 모습을 그들의 놀이모습과 놀잇감의 크기로 비교해서 보여준다. 우선 속표지에 나오는 빨랫줄에도 커다란 옷 두 벌과 작은 옷 한 벌이 나란히 걸려 있어, 옷



의 크기부터 티치의 것은 아주 작다. 티치의 자전거는 조그만 세발 자전거인데, 형의 자전거는 헤드라이트까지 달린 커다란 것이고, 누나 것도 티치의 것보다 커다란 두발 자전거이다. 형이 나무 꼭대기까지, 누나가 지붕 위까지 연

을 날릴 때 티치는 겨우 바람개비를 돌린다. 또

형이 큰북을 치고 누나가 트럼펫을 불 때 티치는 자그마한 나무 피리를 부른다. 하지만 작아도 티치는 꼭 필요한 일을 한다. 목공일을 할 때 형이 커다란 톱으로 톱질을 하고 누나가 큰 망치를 들고 오지만 티치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바로 작지만 꼭 필요한 몫을 가져온 것이다. 형이 커다란 삽으로 흙을 파고, 누나가 큼직한 화분을 들고 오지만 티치는 중요한 아주 작은 씨앗을 가져온다.

이때까지도 형도 누나도 심지어 티치 자신까지도 티치가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형과 누나는 자신들이 크고 어려운 일을 한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몫과 씨앗을 들고 온 티치를 우습다는 듯 쳐다본다. 티치도 형과 누나가 부럽다는 듯한, 그리고 자신이 부끄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다. 하지만 씨앗이 싹트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화분위로 쏙 나온 작은 싹을 바라보는 형과 누나는 놀라고 티치는 조금 자랑하는 표정이 되더니, 나무가 자라고 자랄수록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변화한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는 깨달은 듯, 이제 형과 누나도 티치가 작다고 알보진 않을 것이다.

그림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화면에 넘치는 색채감이 주는 산뜻함과 풍성함이 집어내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점을 잘 살려 남매간의 단순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보여진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기조로 하여 표현된 그림은 산뜻한 맛을 준다. 크기와 할 수 있는 일의 비교에서 크고, 조금 작고, 아주 작고의 순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구성은 리듬감을 준다. 또 더자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 책은 겉장의 앞면과 뒷면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앞표지에 나타난 티치의 모습과 나무의 뒷모습이 뒷표지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



《물루》(그레고와르 솔로타레프 글·그림/ 최윤정 옮김/ 용진닷컴)에서는 나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과 동무로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한 번도 늑대를 본 적 없는 토끼 톰은 한 번도 토끼 사냥을 한 적 없는 아기 늑대를 도와주고 '물루'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구절처럼 톰과 물루는 그때부터 동무라는 관계로 서로 묶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늑대는 토끼를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지만, 한 번도 토끼 사냥을 해보지 못한 물루여서 톰이 가르쳐준 대로 낚시로 양식을 마련한다.

하지만 그 본성은 어쩔 수 없는 법인지 '늑대 겁내기' 놀이를 할 때 톰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다시는 물루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낙심한 물루는 산 속으로 다른 토끼를 만나러 가지만 그 곳에서 늑대들의 공격을 받고 톰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톰에게 돌아가 다시는 겁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 톰이 물루를 용서하자 둘은 다시 낚시를 하러 간다.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으르렁거릴 때마다 물루가 떠오른다.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억누르면서까지 친구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기로 결심한 아기 늑대의 결심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함께 읽는 아이들도 늑대가 토끼를 친구로 인정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나와

전혀 다른 존재와 맞추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아멜리아 할머니의 정원》(멜리나 스탠포드 글/스티븐 마이클 킹 그림/ 정태선 옮김/ 국민서관)은 스티븐 마이클 킹의 따뜻한 그림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주인공 아멜리아 할머니는 고양이 무스타파와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는 정원을 사랑했지만, 정원은 가꾸는 일은 점점 할머니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장미나무에 가지를 치지도 못했고 잔디밭도 깎지 못한다. 심지어는 중국 달이 나온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을 때는 보여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옆집 3층짜리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정원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누구도 할머니 정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건은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던 날, 정원이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면서 생긴다. 파라솔, 분홍장미, 화분들, 닭장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쫓아 나온 할머니까지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넘어진다. 그러자 3층 건물에 사는 이웃들이 뛰어나와 할머니 물건을 잡으러 뛰어다닌다.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 동안 날아간 닭도 잡아오고 닭장 지붕도 고쳐준다. 그리고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날아간 닭장처럼 마음의 벽을 서로 날려버린다. 살아가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의 정원에서 위로를 받는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무관심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맑은 수채화 그림이 아름다운 이웃을 모습을 따뜻하게 전해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남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부터 열어야 하는 걸 느끼게 한다.

함께 읽어볼 만한 그림책을 고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항상 우리 그림책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만 주제와 연령에 어울리는 책을 고르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림책 시장이 넓어지고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번 주제처럼 아이들의 생활과 심리를 그리고 있는 책은 더욱 고르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권모두 외국 그림책으로 고르게 되었는데 글을 끝내야 하는 지금 마음이 참 갑갑하다. 어린이날이 들어 있는 오월,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는 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좋은 그림책 소개에 소개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소개된 그림책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은 다음호에 게재해 드립니다.

세 살 아이와 그림책 보는 재미

김진숙 · 회원

이 글은 지난 호 [좋은 그림책 소개] 코너에서 소개된 그림책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 (김성은 글 · 김종도 그림 · 사계절) 와 <나무> (엘라 마리 그림 · 사공사)를 아이들과 함께 읽고 쓰신 글입니다.

그림책을 들고 세 살 아이들에게 갔다. '나무'와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를 "에들어~ 이모가 그림책 읽어줄게." 하니 좋아하며 빙 둘러 앉는다. 표지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 하니 "나무" 한다. 글이 없는 그림책. 글이 없듯 아무 말 없이 그림만 보여줬다. 나무가 갈색으로, 그리고 하얗게... 아이들이 쳐다본다.

멋지게 웃고는 말을 건다.

"나무에 잎이 나왔네." "이게 뭘까?" 나뭇잎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도마우스에 빠져든다. 땅속에 있는 도마우스를 보고는 대답이 없던 아이가 땅 위로 올라오는 도마우스를 보더니 "생쥐" 한다. 생쥐 아닌 것 같은데? 뭘까? 사실 이름을 물랐기에 아이들에게 알려 줄 수 없었다. 다람쥐를 달았기는 한데... 우리 그냥 다람쥐라고 할까? 반응이 없다. 아이들은 이름에는 관심이 없다. 회색 털이 있는, 꼬리가 긴, 얼굴은 생쥐같은, 다람쥐처럼 나무에 오르는 동물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와 나무로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반해있다. 나뭇잎이 많아졌다, 색이 변했다, 도토리가 있다... 이런 말에 신경도 안 쓴다.

다 본 뒤 뒤에 설명을 보니 동물의 이름이 적혀있다. 도마우스.

다시 보여주며 "이게 도마우스래" 하니, 잉? 하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회색빛 하늘을 보고 물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민들레 홀씨를 보고 후후 하고 불기도 한다. 그래도 역시 도마우스가 제일 인기다.

한 번 두 번...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그림들에 관심을 보인다. 물론 내가 씨앗이 땅속에 있네, 풀이 나네, 꽃이 있네, 아기 새가 있네... 라고 말해야 어? 하며 보지만.

다음날, 아이들에게 책 읽어 줄게 하니 책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얼른 읽어달라고 한다. 또 빙 둘러 앉는다. 엉덩이를 돌리면서 무릎에 앉기도 하지만 "책은 어디에 둘까?" 하니

금세 앞으로 가서 앉는다. 귀여운 녀석들.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는 세 살 아이들과 보기에 그림이 다양해 더 재미있다. 큰 아이들처럼 수수께끼를 하지는 못하지만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 트럭, 축구공, 강아지, 소, 개구리, 나비, 벌, 물고기, 여치, 개똥벌레, 염소, 다람쥐...

민들레 흙씨를 보고는 후후 분다. "운동장에서 우리 후후 불었지?" 하니 모두 "어 어" 하며 후후 분다.

"이건 개똥벌레야. 반짝 반짝 빛이 나지" 하니 "여기도, 여기도" 하며 개똥벌레를 손으로 짚는다. 비가 오는 그림에서는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비" 한다. "우르릉 뽕뽕 번개도 치네" 하니 깜짝 놀라는 시늉도 한다.

다람쥐를 보다가 나무에 난 구멍을 가리키며 뭐냐고 묻기도 하고, 잘 아는 토끼는 "이게 뭐야?" 하니 자신있게 "토끼" 한다.

연을 날리고 있어 "연 날리네. 이게 연이야" 하니 "옛 먹을래" 한다.

개구리는 어디 있을까?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하며 그림을 찾기도 하고, 이게 뭐게? 하며 이름을 알려 주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풍경을 보며 그때 그때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도 하며 본다.

아는 동물이 나오고, 또 경험했던 장면들이 나오면 더 재미있어 한다.

처음엔 여섯 명의 아이들이 같이 보기 시작했다가 한 명 한 명 다른 놀이를 하러가기도 하고 끝까지 다 보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보기도 하며 그림책을 본다.

예상하지 못하는 말들이 나오고 이것도 아나 싶게 기록함을 느끼기도 하고 기억력이 좋구나 하며 놀랍기도 하는, 세 살 아이들과의 그림책 보는 재미가 솔솔이다.

혼합연령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권혜진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권혜진님은 우리 회의 정책연구부로 활동하였으며, 서울대학교대학원 아동가족학과에서 "도래상구성 과 과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영유아들이 출생하여 성장하며 접하는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 등은 모두 혼합연령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보육·교육기관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집단구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들은 동일연령으로 학급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동일연령 학급 구성방법이 산업화이후 상품생산과정의 균일성을 강조하는 공장모델과 유사한 균일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집단구성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및 교육과정, 집단구성에 따른 도래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배경

혼합연령 프로그램¹⁾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집단구성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를 알아본다.

1)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역사

과거에 영유아들은 가정 내에서 연령차가 나는 형제, 가정 밖에서 연령차가 있는 골목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였다. 19세기 초에는 대부분의 보육·교육기관들은 한 교

1) 여기에서는 혼합연령 집단구성을 다연령간의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 개념으로 사용한다(Bacharach, Hasslen, & Anderson, 1995)

사가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한교실학교(one-room school)들은 6살에서 14살 가량의 아동들 10명 -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교사가 아동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쳤다(Goodlad & Aderson, 1987). 이러한 집단구성은 대부분 지리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과 같이 혼합연령 집단구성의 철학을 기초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현대사회에 일반화된 동일연령 집단구성 모델은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시대의 산물로 새롭게 출현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보육·교육기관들은 원료의 질, 효율적인 생산라인, 최종 상품의 균일성을 강조하는 공장모델과 유사한 획일적이고 균일한 교육과정으로 영유아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Katz & McClellan, 2000). 연령별 학급구성은 연령별 편성에 관한 교육적 연구결과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행정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1860년대에는 광범위하게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령별 학급편성이 채택되었으며, 이제 한교실 학교는 농촌지역, 즉 연령별 집단구성을 할 만큼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만 남아있게 되었다(Goodlad & Aderson, 1987).

공공 교육의 연령별 모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외로운 노력들이 20세기에 일어났다. 시카고 대학의 존 듀이의 실험학교는 연령에 따라 아동들을 독단적 배치를 없애려고 하였다. 1960년대 개방교육운동은 집단교수, 다연령 집단구성, 무학년 학급등을 결합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령별 분리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시도들은 고립적으로 일어났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Bacharach, Hasslen, & Anderson, 1995).

미국에서 혼합연령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제한적이거나 다소 관심의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동일연령 집단구성의 문제점과 혼합연령 집단구성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Veenman, 1996). 또한 지능검사, 능력별 학급편성(tracking) 등과 같은 전통적인 평가방식을 강조하는 대중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Katz, et al., 1990).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 맞벌이 부모의 증가, 형제없는 외동아의 증가 등으로 영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 범위가 협소해졌다. 이러한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 부족이 영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Veenman, 1996), 이에 대한 대안적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Katz, Evangelou, & Hartman,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혼합연령 학급편성을 법제화했으며, 혼합연령 학급구성이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이 되고있다(Katz, et al., 1990). 현재 혼합연령 집단구성은 몬테소리 유치원, 영국의 유아학교(infant school), 독일의 상황중심 유치원, 미국의 개방교육 등에서 볼 수 있으며(Stephens, 1974), 세계 각국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에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2)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혼합연령 집단구성의 근거는 아동발달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철학적 틀에 뿌리를 두고 있다.

(1) 인지발달이론

피아제(Jean Piaget)에 의하면 영유아의 인지발달은 유기체인 영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적응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는 인지의 능동적인 구성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영유아의 물리적 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를 동화, 조절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발달을 자극한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능동적 학습자'로서 간주하며 영유아가 자신의 발달적 수준에 적절한 활동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화된 교수전략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 사회·문화적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에서는 영유아들의 인지발달은 그들의 현재 발달 수준을 약간 넘어선 어떤 것을 하도록 도전받았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는 비고츠키(Lev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개념에 의해 잘 설명된다.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은 "스스로의 독자적인 문제해결에 의해 결정되는 실제 발달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좀 더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과정에서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과의 거리"이다(Wertsch, 1985). 근접발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더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단계적 지지(scaffolding)" 역할을 하여 실제 발달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나이 많은 영유아는 나이 어린 영유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능숙하게 된다.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경험들은 영유아에게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혼합연령집단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발달수준이 다른 영유아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사회·인지적 발달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Berk, & Winsler, 1995).

(3) 사회학습이론

반두라(Albert Bandura)를 비롯한 사회학습이론가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만 하여도 이를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방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거나 권위나 우월함을 인정할 만한 매력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모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혼합연령 집단에서는 나이 많은 또래들이 나이 어린 또래에게 의미있는 모방과 관찰 학습의 모델이 되며, 이러한 모방과 관찰 학습의 기회는 연상아동과 연하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charach, Hasslen, & Anderson, 1995).

(4) 심리사회적 이론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은 영유아의 발달을 영유아가 성장하면 맺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발달의 각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다. 영유아기에서 아동 중기까지 아동들은 자율감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혼합연령 집단구성에서 경험하는 다연령 관계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혼합연령 집단에서는 영유아들이 자율감, 주도성, 근면성을 발휘할 기회가 동일 연령 집단에서 보다 풍부하게 제공되며 반면 수치감, 죄책감, 열등감 등을 보다 덜 경험하게 된다.

(5) 생태체계 이론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는 영유아발달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국가라는 여러 가지 환경속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생태체계이론은 영유아의 발달은 영유아를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의 다섯 가지 환경체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출생하여 성장하며 접하는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 환경이 보육·교육기관의 집단구성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야 한다.

혼합연령 학급의 아동들은 가정, 또래관계, 지역사회, 광역사회, 국가의 산물이다. 따라서 능력, 관심, 문화적 가치, 믿음의 관점에서 아동은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재이다. 가정과 학교 간의 필수적인 연계는 학교상황을 보다 다양한 세계를 보다 밀접하게 표상하게 한다. 다연령 집단구성은 다양한 집단구성 때문에 세계의 실재를 반영한다.

<표> 혼합연령 집단구성의 이론적 배경

이론	이론가	적용
인지발달	피아제	영유아는 지식의 능동적 구성자이다
사회학습	반두라	발달은 관찰과 모방을 통한 사회학습의 산물이다.
사회문화이론	비고츠키	"근접발달영역"은 실제적 발달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간의 차이이며,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활동에 의해 촉진된다
심리사회이론	에릭슨	개인이 직면하는 일련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다.
생태체계이론	브론펜브레너	발달은 영유아와 생태체계의 각 수준간의 상호연관의 결과이다.

출처: Bacharach, Hasslen, & Anderson(1995), p12

2.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특성

혼합연령 프로그램은 연령에 의한 수직적·수평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영유아들에게 동일연령 집단구성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또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1) 혼합연령 집단구성

혼합연령 집단구성은 가장 나이 많은 영유아와 가장 나이 어린 영유아간에 적어도 2년의 연령차가 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Bacharach, Hasslen, & Anderson, 1995). 혼합연령 집단구성의 근거는 행정적인 재정적 측면에서가 아닌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초한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 능력을 가진 영유아와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자신과 연령, 능력에 있어 차이가 나는 영유아들과의 수직적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동일연령으로 구성된 집단에 비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은 집단의 연령범위, 집단의 크기, 집단구성의 유형, 교사 대 영유아의 구성비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박현주, 1998). 혼합연령 학급은 연령차이가 2-3세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독일의 통합아동보육기관처럼 영아부터 방과후의 초등학교 아동까지를 포함하는 가족적 집단형태로 구성되기도 한다(정미리, 2004). 집단의 크기는 보통 아동 15명 -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2-3명의 교사가 상호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박현주, 1998). 집단구성의 유형에 있어서도 전체 혼합연령 집단이 하루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연령별 소집단 활동과 연령간 소집단 또는 대집단 활동을 병행하는 부분통합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우리어린이집, 2003)

2)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장점

동일연령의 영유아들이 동질적인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단일화된 교육과정은 영유아들을 우수한 영유아와 열등한 영유아로 분류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장점중의 하나는 나이가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 영유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들은 어른보다 다른 영유아로부터 더 쉽게 배우며, 혼합연령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다른 영유아를 가르치는 입장에 서는 경험은 자기의 학습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혼합연령 집단구성은 부적응 행동 유아의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 행동 중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 또래들로부터 고립되는 경험이 단일-연령 학급에서 보다 혼합연령 학급에서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atz & McClellan, 2000).

혼합연령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언어,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특히 발달적으로 비정상인 아동, 남아,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의 발달을 지원하였다(Cushman, 1990).

3)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단점

혼합연령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려운 점은 발달수준의 차이가 나는 영유아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려면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능력과 관심의 범위가 너무 넓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나이 많은 영유아들의 경우 어린 영유아가 있는 학급에서 지적인 자극을 덜 받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 영유아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더 훈련되고 유능한 교사의 자질이 요구되며 교사 2-3인의 상호협력에 전제되어야만 혼합연령 프로그램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부분의 보육·교육기관들이 동일연령 집단구성을 선호하는 것은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기 용이하며, 교육과정 구성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박현주, 1998).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각 기관의 상황과 영유아의 특성에 맞추어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3.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교육과정 지침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및 교수전략들이 사용된다. 또래협력활동, 소집단 활동, 집단교수활동 등은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 영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공통된 전략들이다(Roopnarine & Clawson, 2000).

(1) 또래 협력 활동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는 또래의 발달수준과 역할에 따라 또래간 가르치기(peer tutoring), 협력적 학습(cooperative learning), 또래 공동작업(peer collaboration) 등 다양한 유형의 또래 협력(Damon, 1984)을 장려함으로써 영유아의 인지,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한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대자와 능동적인 토론과 의견의 교환, 자신들의 부분적이고 부족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공동발견' 하게 되며 영유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결방안보다 더 나은 해결방법을 찾게 된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주려면 다양한 연령의 또래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공동 활동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 이해심을 기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소집단 활동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수준이 다른 영유아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가 동시에 한 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소집단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

동일연령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프로그램은 교수적이며 매우 구조화되어 있고 교사에 의해 형성되고 주도되며 집단간 영유아들의 이동이 드물다(Stephens, 1974). 이에 반해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집단구성은 융통성이 있으며 구조화의 정도가 덜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의해서도 주도된다. 영유아들이 형성하고 주도하는 집단구성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영유아들은 같이 활동하고 싶은 또래들을 선택하는 것이 장려된다. 소집단활동은 교육적 효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 자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고 경험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동료들 간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능력 등의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확장시킨다.

(3) 집단 교수 활동

혼합연령집단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이나 능력의 차이로 인해 학습활동의 계획과 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활동자료가 다양하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협력적인 관계로 일하는 집단교수(team teaching)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교수는 서로가 각자를 보충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가진 둘 이상의 교사들이 상호협력하여(Stephens, 1974)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집단교수는 영유아의 관찰 및 평가에 교사 1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여러 교사가 여러 각도에서 영유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실험 연구 : 혼합연령쌍과 동일연령쌍의 또래상호작용 및 문제해결력 비교

• 이 실험연구는 권혜진(2006), 또래쌍구성과 과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요약 인용한 것임

이 실험연구는 집단구성에 따른 또래협력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문제해결 활동에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이 또래쌍구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래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로 구체화 되었다.

【연구문제 1】

공동의 문제해결활동에서 또래 상호작용은 또래쌍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공동의 문제해결활동에서 문제해결력은 또래쌍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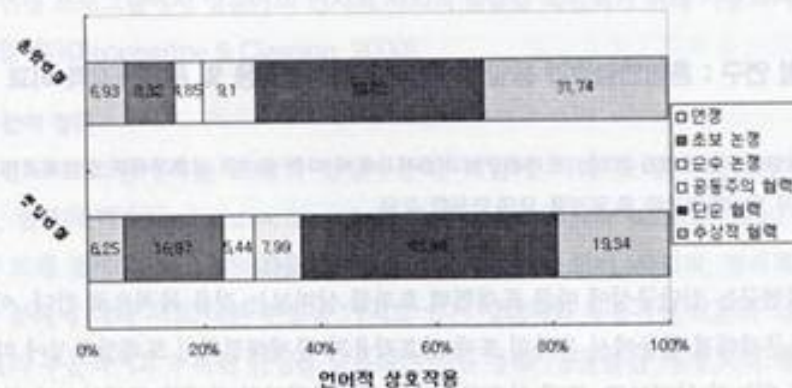
【연구문제 3】

공동의 문제해결활동의 또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협력과 갈등은 문제해결력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의 중산층 거주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78명을 연구대상 초점유아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상호작용 대상 또래의 연령을 달리하여 각각 혼합연령 또래쌍과 동일연령 또래쌍 집단에 무선 배정하고, 공동문제해결 활동에서 이들 또래쌍의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였다. 공동문제해결 상황에서 이루어진 또래 상호작용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여 전사한 후 또래 상호작용 분석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으며, 또래쌍의 문제해결력은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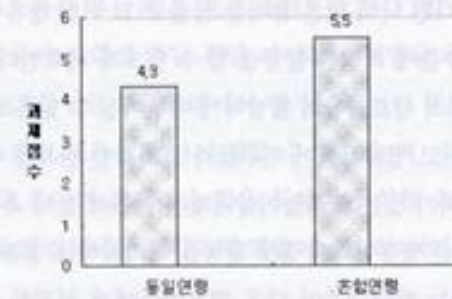
위와 같이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혼합연령 또래쌍은 문제해결에 대해 이유나 근거 등을 제시하며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추상적 협력 대화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동일연령 또래쌍 보다 많이 하였다(그림1). 즉 상대 유아의 연령이 높을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대화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한편 공동문제해결 상황에서 또래간의 갈등적 상호작용은 혼합연령 또래쌍에서 보다 동일연령 또래쌍에서 더 빈번하였다.



<그림1> 혼합연령 또래쌍과 동일연령 또래쌍의 언어적 상호작용 비교

둘째, 공동문제해결 활동에서 나이많은 또래와 상호작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이 가능하였다(그림2).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자신보다 유능한 또래와 근접발달영역에서 상호작용할 경우 유아의 실제적 문제해결수준보다 더 나은 잠재적 문제해결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Vygotsky의 관점을 지지한다(Rogoff, 1990; Hogan & Tudge, 1999).



<그림2> 동일연령 또래쌍과 혼합연령 또래쌍의 문제해결력 비교

셋째, 협력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간의 관계는 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랐다. 또래간 적극적인 의견의 교환과 사고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과제 공동 수행 상황에서 또래간의 추상적 협력 대화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 반면 공동주의 협력 대화, 병행 행동 등과 같이 낮은 수준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과제 수행과 오히려 부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관심의 공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단순 협력 대화는 문제해결력과 상관이 없었다. 혼합연령 또래쌍이 동일연령 또래쌍보다 더 우수한 문제해결력을 보인 것은 혼합연령 또래쌍이 동일연령 또래쌍보다 추상적 협력 횟수가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표 2> 협력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의 상관관계

또래쌍	문제해결력	공동주의 협력	단순 협력	추상적 협력	병행	관찰/시범
동일연령	분류과제	-.236	.139	.566**	-.381	.353
또래쌍	서열과제	.123	-.077	.457*	-.109	.048
혼합연령	분류과제	.188	.137	.709***	-.486*	.196
또래쌍	서열과제	-.098	.043	.675***	-.339	.145

6. 교사의 역할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직접적 교수자의 역할보다는 영유아들이 또래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래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발달수준이 다른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책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면 나이 많은 유아는 글을 쓰고 어린 영유아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영유아가 자신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와 함께 교사는 연령간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가능한 교사의 직접적 개입을 줄이고 영유아들이 친구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하며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차가 있는 또래놀이상대자가 반응적 놀이 촉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영유아와의 공동 활동을 어려워하는 영유아들을 지원한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발달수준이 다른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부모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철학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설명회, 기관방문, 가정통신문, 부모참여활동, 부모교육, 영유아관찰을 통해 부모가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목표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평가

혼합연령 집단 구성은 가족이나 이웃집단과 유사하며, 혼합연령집단의 경험에 의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나 리더십 등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며 능력이 다른 영유아간의 가르침이나 협동학습의 경험이 영유아가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효과적이며 연령으로 구분된 엄격한 교육과정을 완화시키므로(Katz, et al., 1990) 영유아의 발달에 보다 적절한 집단구성 방법이 될 수 있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혼합연령 집단구성의 교육적 효과는 달라진다. 즉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철학적 배경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운영 철학으로서 혼합연령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환경구성, 교사교육, 교육계획을 실행할 경우 영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Mason & Burns, 1996). 그러나 보육·교육기관의 재정적인 문제, 원아 충원의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연령의 영유아들이 한 집단을 구성하게 된 경우에는 혼합연령 집단구성이 영유아의 발달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Mason & Burns, 1996). 즉 혼합연령 집단구성 그 자체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잘 계획되고 준비된 혼합연령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만 혼합연령 집단구성의 잠재적인 교육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의 영유아발달 평가는 동일 연령 프로그램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검사 또는 능력선별검사를 지양한다. 영유아 보육·교육에서의 평가는 평가 그 자체보다는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이 강조되며 평가받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발달수준과 능력이 다른 영유아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성 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혼합연령 프로그램에서 평가는 유아가 현재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성인이나 능력있는 또래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아의 근접발달 영역의 폭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찾아내어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발견해내는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은화 외, 2001).

7. 한국현장에서의 적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연령 프로그램의 기관의 집단구성의 철학으로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으로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들이 동일연령 집단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혼합연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혼합연령 집단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실제로 혼합연령집단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보육과정 및 교수방법이 부족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혼합연령 집단 지도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혼합연령집단의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혼합연령집단은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연상유아, 연하유아 그리고 동갑유아들간의 관계형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연상, 연하, 동갑 유아의 구성 비율, 교실환경구성, 부모 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실태 조사에 의한 혼합연령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혼합연령집단 구성시 연상유아들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하유아들은 연상유아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받을까하여 혼합연령집단을 회피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혼합연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연령으로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과 일정 부분, 또는 주간교육활동 중 일정 부분을 연령간 통합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해 봄으로써 혼합연령 집단구성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현주(1998). 유치원 혼합연령 학급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0). 보육교사를 위한 반별 운영관리(1): 영유아반, 혼합연령반, 방과후반. 보건복지부.
- 우리어린이집(2003). 우리어린이집 2003년 평가. 공동체교육과 공동육아. (www.gongdong.or.kr)
- 이은화·이정환·이경우·이기숙·홍용희·박은혜·김희진(2001). 유아교육개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미리(2004). 독일의 연령 혼합집단. 서울시보육정보센터 (children.seoul.go.kr)
- Bacharach, N., Hasslen, R. C., & Anderson, J.(1995). Learning together : A manual for multiage grouping. Corwin press.
- Berk, L. E. and Winsler, A. (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홍용희 (옮김, 1995). 어린이들의 학습에 비계설정: 비고츠키와 유아교육. 창지사.
- Damon, W. (1984). Peer education : The untapped potentia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 331-343.
- Freedman, P.(1981). A comparison of multi-age and homogeneous age grouping in early childhood centers. Urbana, IL: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07 673)
- Goodlad, J. I., & Aderson, R. H.(1987). (The nongraded elementary school.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Katz, I. G., Evangelou, D., & Hartman, J. A. (1990). The Case for Mixed-age Grouping in Early Educ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Katz, I. G. & McGellan, D. E. (2000).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The teacher's role. NAEYC. 홍용희(옮김, 2001). 어린이들의 사회적 능력 배양: 교사의 역할. 양서원.
- Mason, D. A., & Burns, R. B.(1996). "Simply no worse and simply no better" may simply be wrong: A critique of Veenman's conclusion about multigrade class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3), 307-322.
- Roopnarine, J. L., & Clawson, M. A.(2000). Mixed-age classrooms for young children. Roopnarine, J.L., & Johnson, J. E.(eds).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ntice - Hall, Inc.
- Stephens, L.s.(1974). 유아를 위한 개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옥순·유해령(옮김, 1996). 서울: 창지사.
- Schrier, D., & Mercardo, B.(1994). A center moves toward multi-age grouping: what have we learned. Day Care & Early Education, 21, 9-11
- Veenman, Simon.(1996). Effects of multigrade and multi-age classes reconsidered.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3), 323-340.
- Wertsch, J. V. (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한양대사회인지발달연구모임(옮김, 1995). 비고츠키:마음의 사회적 형성. 경민사.
- <http://www.hogarthschool.com>
- <http://children.seoul.go.kr/children>
- <http://www.gongdong.or.kr>

혼합연령 보육의 시작

공터의 기억으로부터..아이들의 환성을 바라며..

성애원 · 정리 편집부

한국보육교사회는 12년째 오사카지역의 일한보육교류연구회의와 한일보육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다채로운 보육을 하고 있는 곳은 성애원과 성희보육소. 희망의 분입니다. 다채로운 보육은 지역화하면 종적보육인데 즉, 연령별 반구성이 아닌 유아의 경우 3, 4, 5세가 함께 혼합연령으로 반편성을 하여 보육하는 혼합연령보육을 말합니다.

혼합연령보육의 운영은 각보육소에 따라 서로 교육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혼합연령보육이라 하더라도 성애원은 장애아통합보육(통합보육)을 하고 있고, 성희나 희망의 분은 자유보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연령보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애원에서는 한번에 4개 정도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고, 성희보육소는 연령별 보육과 혼합연령보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희망의 분 보육소는 혼합연령 속에서 짝(pair)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약간씩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성애원에서 발간한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이란? -성애원의 혼합연령보육이 추구하는 것]을 번역, 요약 한 것입니다. 보육소는 보육시설을, 보모는 보육교사를 지칭합니다. 내용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번역체의 어색함을 양해해주세요~.

[공터]의 기억에서 부터

어린이들의 환성이 들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서의 공터, 그리고 어린이 자신들이 만들어 낸 친구집단의 대명사로서의 공터 그런 공터를 추구하여 시작한 혼합연령보육, 연령에 구애 없이 독특한 아이든 그렇지 못한 아이든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혹은 장애가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상관없이 어린이들만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낸 공터, 골목대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뭉치는 것, 약한 친구를 따돌리지 않는 것, 친절함, 강함, 용기, 이제부터 어른이 되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스스로를 키워가기 위한 모든 토양이 이곳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한 공터를 추구하며 보육원 안에서의 공터로서 성애원의 혼합연령보육이 시작되어진 지 15년 정도가 되었다. 혼합연령보육은 매일 매일의 보육원 생활을 어린이들 자신이 책임져 나가기 위하여 공터에서 어린이들의 유대감을 길러 어린이들 자신의 사회로서의 어린이집단을 육성하려 한 것이다.

성애원의 혼합연령보육은

성애원에서는 3,4,5세 어린이들의 혼합연령보육학급이 3반, 1,2세 아동들의 혼합연령보육학급이 2반 있다. 먼저 처음에는 3~5세 어린이의 혼합연령보육학급을 만들었다. 나이 많은 어린이가 어린 어린이를 도와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친한 친구집단을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고 날마다 학급생활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3세 이상의 어린이였으므로(3세 이상이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이런 연령구별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후 혼합연령보육에 있어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세계(공터)를 만들어 내는 의의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을 연령별 발달단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어린이 한명 한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서로 함께 유대를 길러주는 의의로 강조되게 되어서 1,2세 어린이 학급도 혼합연령학급으로 구성되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성애원에 있어 혼합연령보육이란 것은 서로 다른 연령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는 학급(또는 그곳에서의 보육)을 의미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1,2세 혼합연령보육과 3~5세 혼합연령보육 양쪽을 가리킨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터를 목표로 모임이 시작되었으므로 3~5세 혼합연령보육을 말한다.

3~5세 어린이의 혼합연령보육에서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기른다”는 것을 근본적 테마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 편성으로는 학급 안에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생활은 스스로가 운영하는 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린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경우 백합(5세 어린이)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백합에게 리더로서의 인식을 스스로 하게하고 백합의 리더십을 기본으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집단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어린이들 스스로의 관계도 더욱 밀착되고 보육의 주도권을 어른에게서 어린이에게도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보육원에 공터를 추구하며

“여기저기다니, 당신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공터에서 해칠 무렵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날들의 일들, 그 때의 공터에는 울목대상을 중심으로 떠돌리 당하는 아이까지 포함되어서 세력이 있는 집단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배웠습니다. 그 곳은 어린이를 관리하는 어른들이 없는 자유훈로 어린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친구를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곳입니다.”

이러한 호소로 1980년 5월 먼저 주 1회 혼합연령보육이 시작되었다.

“배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치니깐 놀이는 하지 않아요 예전에 공터에서 놀던 아이들은 좀 더 어울려 놀이를 했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요즘 애들 짝이 짝 못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선 아이들은 놀 때도 부모만 찾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신들의 놀이인데 어째서 우리들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나? 자신들의 놀이 정도는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나? 지금까지의 보육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지금까지의 보육을 되묻고 고치려는 의미도 있고 하여 성애원에 [공터]를 재현하려고 혼합연령보육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혼합연령보육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들 스스로 놀이를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5세 어린이는 형제자매처럼 나이 어린 어린이를 보살피고, 3세 어린이는 아직은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나이 많은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거기서 자연스러운 친구관계의 유대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 자신들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보육자가 앞에 서서 가르치는 종래의 설정보육주의라고도 불리는 보육관 또는 연령별로 나뉘어져 ‘몇 살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좁은 발달관 속으로 어린이들을 밀어 넣는 보육에 대한 위화감의 제기이기도 하며 비판이기도 하다.

[장애아]공동보육을 전제로 한 보육의 모색으로서

이러한 위화감을 갖게 된 배경이 된 것은 성애원의 보육자들이 “장애아 공동보육이야말로 진정한 보육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보육을 만들려고 해 온 경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애원에서는 혼합연령보육을 시작한 10년 전부터 장애아를 받아들여 장애아를 당연히 같은 보육의 장소에서 보살피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장애아를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보육원에서 ‘보살펴준다’는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제기가 된다. 이것을 수용하여 의논을 하고 아래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즉, 이 세상에 얼마간의 일정 비율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육원의 어린이들에게 하나의 사회가 있다고 하고 이 보육원이라는 하나의 사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한명도 없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의 세계에는 장애아가 없다고 하는 거짓말(허구)의 현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아를 배제해온 지금까지의 보육은 거짓말의 보육이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혼합연령보육으로 이행하기 몇 년 전부터 “장애아 공동보육이야말로 진정한 보육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로 종래의 설정보육주의라고도 불리는 보육에서는 정상아에 비해 뒤떨어지는 장애아는 ‘보육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육현장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라고 한다면 장애아가 있는 경우 불가능해지는 보육 그 자체이고 그러한 보육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보육자 주도형의 보육이 문제이므로 좀 더 어린이들 스스로의 성장을 믿어도 좋지 않을까. 실제로 장애아들이 건강한 정상아동들

과 어울렸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아왔다 건강하고 정상인 어린 이들에게도 그것은 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장애아공동보육'을 권장하여 오면서 보육자 측에 있게 되는 유형무형의 규제와 이 장애아와 정상아의 만남을 막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벽을 헐고 극복하여가는 실마리로서 혼합연령보육은 큰 시도이며 또 테마가 되었던 것이다.

어린이들의 환성을 바라며

어른들에게 시끄럽다고만 꾸지람 듣는 어린이들의 환성을 어린이들 본래의 있는 모습, 문화로서 받아들여 이것을 언제까지나 존중하여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부터 혼합연령보육의 모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보육'의 모색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애의 유무, 각기 다른 능력, 각기 다른 생활환경, 다른 성격 등 각기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해 주고자 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쨌든 어른들 편에서의 '해준다' '받아들여준다' 밖에 되지 않는 것 또 결국은 보육자가 설정한 것에 어린이들을 억지로 밀어 넣는 보육밖에 되지 않는다는 일에 눈을 뜨게 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어린이들 자신의 손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공터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어른과는 다른 어린이들도 [우리]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일로서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주적인 생활을 만들어 내어 함께하는 보육원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모색을 해 왔다.(계속...)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다섯번째-

고정미 · 회원/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 연구원/유아국악강사

올 학기 초에는 아이 재우는 소리, 아이 어르는 소리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장가' 정도는 그래도 아이들 입에서 흥얼흥얼 거렸었거든요. 점점 '자장가'가 아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자장가'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탄생과 행동들에 대해 잠깐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뚜까뚜까'도 해주고 '쟁쟁'도 해주고 '작작쿵'도 해주고 '어부바'도 해주고 말도 태워주고.....하면서 아이들은 한 사람의 탄생과 성장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에 졸리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하라는 숙제(?)도 내주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주물러드릴 때 '뚜까뚜까' 노래를 부르면서 해보라는 조연도 해주고..... 몇몇 아이들이 집에서 식구들을 조르면서 위의 내용들을 실천하길래,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바로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상황들을 함께 공감해가는 분위기속에서 자신이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면서 얻는, 삶의 희열이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하기는 아닐까요?

'쟁쟁'놀이를 7살 정도의 친구들과는 초등학교생들이 '풍당풍당' 노래에 맞춰 놀이하는 수벽치기내용으로 확장해서 놀아볼 수 있습니다. 한명은 주먹을 다른 한명은 보자기를 대고 '쟁쟁'놀이와 동시에 주먹과 보자기를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하다가 점점 빠르게.....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강강술래 '고사리 정자'에 해당하는 놀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명 | 고사리경자 -자진모리장단-

경자 경자 / 고사리 대사리 경자
 고사리경거 바구니 담고 / 아산이나 넘자
 경자 경자 / 고사리 대사리 경자
 송쿠경거 옷집연고 / 대산이나 넘자
 어디났나 / 여기났다

고사리를 꺾어보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경험이 없다면 고사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본다. 고사리의 생김새와 '고사리경자'의 놀이를 해본 후에 느껴지는 동작의 느낌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재미있다(몇 번 놀아본 후에 일정정도 익숙해졌을 때).

한손을 옆구리에 대고 바구니를 들은 모양을 한 후, 고사리를 꺾어서 담는 흉내를 내며 위의 노래를 불러본다. "어디났나?" 하고 물으면 "여기났다!" 하면서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는 과정들을 좋아한다.

앞대장이 앉아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대로 짚어주고, 아이들은 차례대로 일어나서 앞사람을 따라가는 활동으로 확장해본다.

또한, 손을 잡고 동그런 원을 그리고 앉아서 앞대장이 옆 사람과 잡은 손을 끊고 나서 한바퀴 돌고 나서 다시 잡고, 그 다음사람의 잡은 손을 끊고 나서 다시 한바퀴 돌고나서 다시잡고.....끊고 한바퀴 돌고 다시 잡고 하다보면 강강술래의 대형이 만들어진다.

반드시 놀이 전에 노래를 충분히 익히고 놀이 시에 메기고 받는 소리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해야 한다.(물론 다른 모든 놀이가 다 마찬가지이다.)

| 활동명 | 청어엿기(물기) -자진모리장단-

청청 청어엿자 / 위도군산에 청어엿자
 청청 청어풀자 / 위도군산에 청어풀자

여러 마리의 생선들이 묶여져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흉내내어보는 놀이이다.
 옆 사람과 잡은 손을 내 어깨로 얹은 후에 차례대로 모든 사람의 잡은 손 밑으로 들어가면서

(차례대로)한사람씩 어깨위로 잡은 손을 엮어준다. 다 엮은 상태에서 원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뒤로 일정정도 움직이다가 "풀자"하면 반대로 풀어본다.

마음이 먼저 앞서거나 미리 앞서서 무언가를 만들고 풀어보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놀이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면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놀이이다.
 여러 번 해봐야 익숙해지는 놀이이다.

| 활동명 | 덕석몰이(풀이) -자진모리장단-

몰자 몰자 덕석몰자 / 비온다 덕석몰자
 비야 비야 오지마라 / 딸발에 장구친다

풀자 풀자 덕석풀자 / 비겐다 덕석풀자
 풀자 풀자 덕석풀자 / 별난다 덕석풀자

앞대장이 하는 말, "아니,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네 그랴. 마당에 넣어놓은 덕석이 다 젖겠는걸.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합쳐서 마당에 넣어놓은 덕석이나 몰아보세~"

이에 다른 이들이 "아, 좋지~"하며 받는다. 그리고 덕석몰이로 들어간다.

위의 노래를 메기고 받으면서 덕석을 말듯이 달팽이 진을 그린다.

덕석을 다 말고 나서 앞대장이 하는 말, "아니, 하늘을 보니 그새 비가 그치고 별이 날 것 같네 그랴. 우리 모두 다같이 돌돌 말아놓았던 덕석이나 한번 풀어보세~"

이에 다른 이들이 "아, 좋지~"하며 받는다. 그리고 덕석풀이로 들어간다.

위의 노래를 메기고 받으면서 그렸던 달팽이 진 모양을 풀고 강강술래 대형을 만든다.

위의 말놀이는 덕석몰이(풀이)를 부분놀이로 놀아볼 경우에 할 수 있겠다. 놀이의 내용을 주고 받는 말속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활동명 문지기 놀이 -자진모리장단-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 / 열쇠없어 못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 / 열쇠없어 못열겠네

.....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 / 덜커덩텅 열렸네

메기고 받는 소리를 서로 바꾸어가며 충분히 연습한다.

다리뿔기 놀이로 문을 만들 문지기를 정한다.

놀이를 할 때 문을 열어달라고 큰소리로 노래를 해야 문이 열려서 잡힐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놀이를 할때 노래가 있어야 더 큰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놀이 1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계속 문을 통과하다가 '열렸네!' 하면서 문을 지나가던 친구를 잡는다. "몇 살?"하고 물어본 후 몇 살이라고 대답하면 그 나이에 맞게 흔들어준다.

놀이 2

잡힌 친구를 '잡았네' 노래에 맞춰 흔들어준다. 이때 다른 친구들은 굿거리장단에 맞는 춤을 추면 된다.

놀이 3

놀이1과 놀이2에 해당되는 동작을 문지기가 '가마'를 만들어서 태워준 후에 한다.

놀이 4

7세정도의 아이들은 문을 통과한 후에 두 명씩 또 다른 문을 만들어서 놀아볼 수 있다.(이때 문을 만들 짝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 좋다.)

문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잡힌 친구를 위의 놀이1,2,3의 내용으로 놀아보면 된다.

문과 문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해주어야 부딪치지 않고 놀 수 있다.

놀이 5

문지기 두 명이 각각의 이름을 갖는다. (예를 들어 '개나리'와 '진달래')

처음에 잡힌 친구를 멀리 데리고 가서 "개나리 할래? 진달래 할래?"하고 물어본 후에 대답하

면 해당되는 문지기 뒤에 가서 허리를 잡고 선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한명씩 데려다가 물어본 후에 모든 아이들이 문지기의 뒤에 서게 되어 두 줄이 되면 '꼬리잡기놀이'를 하면 된다.

이때 너무 과하게 하면 다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상대방의 꼬리를 잡아야함을 강조한다. 먼저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이면 좋겠다.

놀이 5에 해당하는 놀이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긴장감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난다. 문지기가 비밀이 있다고 저만치 가더니 돌이 속닥속닥거린다. 궁금하다. 잡힌 친구를 한명씩 구석으로 데리고 가면서 또 뭐라고 속닥속닥거린다. 어떤 아이는 어떤 문지기의 뒤에 서고 어떤 아이는 어떤 문지기의 뒤에 선다. 도대체???

모두가 너무 재미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동생을 보았을 때”

- 부모님들께

윤선영 · 본회 전문위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함께 생각해 붙시다’에 올라온 보육교사들의 고민은 본회 홈페이지 [보육활동상담]에 올려진 글들을 정리하여, 함께 생각해 볼 지점에 대해 윤선영 선생님께서 기고해 주시는 글입니다. 상담내용에 있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고민 하나**

5살 된 딸아인데 신경성인지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동생 터울이 2살 차이 나는 남자 동생을 자주 밀치고 엄마가 없을 때에는 많이 때려요. 말로도 잘 타일러 보지만 여전히 남자 동생을 때리고 또래의 약한 친구를 보면 동생처럼 막 때리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래의 친구들과 사귀어 보라고 학원을 보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학원을 보내는 건 아닌지 학원 이야기를 하면 대꾸도 않고 신경질만 부리는데, 너무 일찍 보낸 건 아닌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민 둘**

둘이 지난 쌍둥이 동생을 둔 여자아이입니다. 거의 한달 간 어린이집에 가길 싫어해서 고민입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집에만 있겠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동생들 때문에 못 놀아 준다고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로 울며 엄마와 떨어지려 하질 않네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과 잘 놀고 잘 지내왔는데 최근 한 달 간은 주로 교사 주위에만 있거나 의존하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또 말수도 줄고 행동이 소심해졌고요. 갑자기 어린이집에 오기 싫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동생들의 영향인지 현실은 어린이집에 와야 할 상황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린이는 태어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인간답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인간이라는 주변 환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김새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반드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음이 바로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고양이 새끼를 데려다 사람이 키워도 고양이는 고양이로 자라나고, 어린 강아지를 데려다 키워도 강아지는 개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동물과 함께 자란다면 동물이 되어 네 발로 걸어 다닌다는 늑대소년 이야기를 아마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인간이 주변에 없다면 일찍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인간이 인간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에는 인간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를 형성해 주는 인간관계는 생후 초기에 형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은 애착관계라고 하지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생학적으로 잘 갖추어진 시설에서 과학적인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육이 늦으며 우울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관찰한 연구 결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양육자와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어느 영양가 높은 음식, 좋은 옷과 장난감이 많다 해도 대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애착관계는 생후 6-8개월 경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면서 시작됩니다. 애착의 유형에는 Ainsworth(1983)가 낯선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실험을 통해 밝힌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이 있습니다. 안정애착은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위안을 찾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쉽게 편안해지는 건강한 애착유형입니다. 회피애착은 어머니가 방을 떠나도 울지 않고 돌아와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저항애착은 어머니와 떨어지기 이전부터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방을 나가면 심한 분리불안을 보일 뿐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와 안아주어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심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혼란애착 유형은 회피애착과 저항애착 유형이 결합된 형태로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에도 얼얼불은 표정으로 매우 경직된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연숙과 조복희(2001)가 연구한 애착 유형 분포를 보면 40명의 실험대상 영아 중 안정애착이 63%, 회피애착이 22%, 저항애착이 15%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영아들에게 적지 않게 불안정애착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이라도 부모(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안정애착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나 반응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에 늘 적절히 반응하여 아이 스스로 자기가 항상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생겼거나 생활환경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면 아이는 당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평소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아이의 반응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보이는 “문제행동”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수용되지 못한다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할 의사소통의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심하면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인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 아무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커서는 사회성과 집중력이 약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이는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부모를 신뢰하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며 능력입니다. 성인은 아이 때의 수용능력을 성장하면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비롯하여 주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바로 인간관계이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 말, 사고, 감정, 도덕성까지 모방하고 동일시 즉 내면화하여 자신의 행동, 언어, 생각, 느낌까지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애착관계는 이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동생을 보는 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생겼으니 너는 잠시 혼자 크고 있어라 하면 잠시 그 현상을 멈추고 엄마가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안 다니던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갑자기 보내기 시작한다면 아이에게는 '이제 나를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기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다니던 곳이라도 마찬가지겠지요). 더욱 못 견디는 일은 지금까지 나 혼자 사랑을 독차지 했는데 동생과 함께 나누어야 하며, 부모가 동생을 더 예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첫 아이 키울 때는 잘 몰랐다가 둘째 아이를 키우며 새삼스럽게 아이의 존재가 더 가깝게 와 닿고 예전에 몰랐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배울기도 합니다. 이 때 생기는 아이의 질투심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의 경우 첫째와 둘째가 8년 차이가 나는데도 갓난아기인 동생에 대한 엄마 아빠의 태도를 옆에서 지켜보던 첫 아이의 눈빛에서 허전함을 발견하고 짹짹 놀라 더욱 조심하곤 했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큰 아이는 아무리 어려워도 "큰" 아이고 동생은 아무리 연령차가 적어도 "작은" 아이라 더 귀여워하며 큰 아이에게는 '너는 컸으니까 양보해야지' 등 연령에 부담스러운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아이들을 이모저모 보살피기 힘들어 때로는 부탁하는 마음에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누구나 자기 존재에 대하여 개별적인 수용, 사랑,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동생이 생기는 상황이 되었든 엄마가 갑자기 질병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 간에,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있는지 우선 부모 스스로 생각해 보고, 또 평소 보다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기면 엄마의 일은 더욱 많아지고 특히 갓 태어난 동생에게는 더욱 손길이 필요하니 시간적으로는 이전같이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요. 이럴 때에

는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큰 아이와 단 둘이 가끔 산보를 한다든지 단 둘이만 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들은 무엇을 하나요?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아빠들이 채워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요즈음 우리 부모들은 첫 아이를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낳고 마치 이 세상에 그 아이만 존재하듯이 최고인 양 기르고, 둘째 아이가 생겨 큰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지면 그 때 비로소 수습에 나서기 일쑤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둘째 아이가 생기면 부모 뿐 아니라 큰 아이의 인생도 역시 달라집니다. 셋째, 넷째를 낳아도 역시 계속 달라집니다. 즉 생후 초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서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인생의 변화에 대하여 미리 마음의 준비와 생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서서히 아주 서서히 첫째 아이의 생활 공간을 확장시켜주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첫째 아이와 가정에서 함께 있을 때 첫째 아이에게 평소 보다 더 조심스럽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하며, 절대 "큰" 아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엄마와의 관계가 안정감이 있을 때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도 아이의 "문제행동"을 통해 그 아이의 내면상태를 수용하고, 엄마의 위치에 설 순 없지만 평소 보다 개별적인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은 자녀를 많이 낳고 적당히 놓아두며 기르는 시대가 아니고, 적게 낳아 소중하다 못해 절대적인 존재로 관심을 쏟아 부으며 키우는 시대라서인지, 아이들의 요구도 10년, 20년 전 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변하여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까지 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시시대의 적자생존 양육방식과 중세기 시대 소유물이나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겼던 양육방법과 아이 나름대로의 인격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들이 요즈음은 모두 동시에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니 희한한 일이지요. 그 만큼 우리 성인들의 내면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지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때로는 아이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였다가, 때로는 귀찮은 존재로, 때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천재로 돌변하니까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순간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내면에 아이를 받아들일 만큼의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지나치게 잘 수행하고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모에게 확신감이 없으면 아이는 불안해 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지 않고도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아이가 안정감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양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첫 아이 키울 때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만 표현하지만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늘리기
- 사주기보다 직접 만들어주기를 더 많이 하기
- 아이는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는 의식 갖기
- 무관심법과 처벌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아이의 공격성을 더욱 키워줍니다)
-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혼내지 않고 제한선 두기(여기까지는 해도 되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단호하게 실천하기)
- 아이를 대할 때 가급적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도록 노력하기
- 조금 더러워진 옷을 입고도 편안히 놀 수 있도록 하기
-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주로 아이의 느낌과 의사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표현하고 인정해 주기
- 안정감 있게 자라고 있을 때 엄마를 조금 떨어져 혼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관찰해 보기
- 동네 놀이터나 주변의 유아교육기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들이 많이 하기
- 또래가 있는 잘 아는 이웃집이나 친척집에 엄마와 함께 갔다가 가끔 남아서 놀다 오게 하기
-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는 반드시 적응시기를 넉넉히 잡고 아이와 함께 노력하기
- 어린이집은 엄마(또는 아빠)와 함께 자주 놀러와 친근한 장소로 여길 수 있게 해 주기
- 가급적 어린이집에는 엄마가 직접 데려다 주고 엄마가 다시 꼭 데려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며 약속 시간(예: 간식 먹은 후)은 꼭 지킬 것
- 데리러 갔을 때에는 반갑게 진심으로 대하기
-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해도)
- 집에 돌아 왔을 때에는 아이의 상태를 잘 살피고 특히 잠을 꼭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이야기 들려주기, 자장가 불러주기)
- 동생이 생겼을 때에는 동생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아이와 함께 아기 보살피기(기저귀 가져다주기, 아기 이불 가져다주기 등, 그러나 절대 강요하지 않기)
- 아기가 울 때에는 아기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 아이가 동생인 아기에 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자부심 가지게 하기
- 형제 간 갈등이 있을 때 절대 큰 아이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지 않기
- 동생에게도 형/누나/언니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기(아기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큰 아이에게는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공평한 태도가 중요함)
- 절대 너무 일찍부터 동생을 혼자 보살피라고 하지 않기(지금은 자녀를 대어섯씩 낳는 60-70년대가 아닙니다. 양육의 책임은 항상 부모에게 있습니다)
- 둘째를 낳은 어머니가 힘든 만큼 큰 아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 질투가 심하고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 있는 힘을 다하여 저항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무엇인가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아이와 단둘이 긴밀한 "데이트" 시간 자주 가지기
-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는 선생님을 진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맡기기(엄마의 느낌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이됩니다)
- 아직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집단생활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고달픈 일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두지 않기(어떤 어머니는 정말 아이를 왜 낳았는지 모를 정도로 어린이집에 마냥 두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온전한 토끼를 잡아야지 한 토끼는 다리만, 다른 토끼는 꼬리만, 또 다른 토끼는 몸통만 잡는다면 잔인하겠지요, 온전한 토끼들을 잡기 위해서는 영리한 작전이 필요하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자식 낳고 기르고, 가정에서 밖에서, 시대 및 친척 간의 일등 많은 것을 해 내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자녀양육 만큼은 "봐주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물론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구나무아이들의 세상

포구나무

☺ 설거지는 이렇게

현이와 겸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현 : 겸아 니 설거지 안해봤나?

겸 : 응

현 :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끼리 큰 그릇은 큰 그릇끼리 정리하면 된다.

겸 : 어떻게?

현 : 니 블록 쌓기 안해봤나?

겸 : 해 봤는데..

현 : 블록 쌓기처럼 쌓으면 된다.

겸 : 이렇게?

현 : 응 맞아 그렇게 하면 된다.

☺ 나는 이층반인데

1층 '내멋대로 반' 이었다가 2층 '하고재미 반' 으로 승급한 은이가

다람쥐샘 : 은아 봉고 탈 준비하자

은 : 왜 난 맨날 1차 봉고야

다람쥐샘 : 2차 봉고 타고 싶어?

은 : 아니 난 2층 반인데 왜 맨날 1차 봉고차야?

☺ 손이 비었네

'내멋대로' 들의 나들이 길에서 먼저 출발한 파랑새샘이 뒤에 쳐져서 꼬물거리는 '내멋대로' 에게

파랑새샘 : 누가 파랑새 손 잡을래? 파랑새 손 비었네 빨리온나.

막 뛰어온 빈이 눈이 둥그레져서 파랑새 손을 살피며

빈 : 파랑새 손 비었어? 피는 안났어?

☺ 굳이는 풀통

백일홍의 전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굳 : 나 처너지?

다람쥐샘 : 아니 굳이는 총각이지

옆에 같이 들고 있던 어진이

어진 : 아니, 너는 풀통이다.



어수선한 3월! 나도 적응기간

이성봉 · 회원

2005년 2월 28일

그동안 장들었던 어린이집을 뒤로하고 새로운 어린이집에 첫 출근을 하였다. 3년간 내가 하고 싶었던 즐거운 활동을 마음껏 하게 해준 곳. 그곳의 익숙함을 털어내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은 정말 정신없이 지낸 것 같다. 우리 어린이집이 공사 중이라 어수선한 중에 출근한 것이어서 아직 선생님들도, 지금 지내고 있는 장소들도 낯이 설다. 늘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빨랐던 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떨지, 내가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내 스스로에게 궁금해진다. 나이 서른에 다른 시설에 간다는 것이 어찌보면 모험인 것 같기도 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곳이 나에게 가르쳐줄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지낸다면 또 다른 경험이라... 가만, 서른이 될 때 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지냈던가? 내가 거쳐 간 어린이집만 해도 벌써 3곳, 민간, 구립, 노조부설어린이집. 참 많은 곳을 거쳐왔군.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우리라 다짐하면서 매년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나는 다른 후배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나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내가 초임 때 본 주임선생님은 내 나이였는데도 늘 새로운 놀이감을 만들어 내거나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두 배의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나를 본 초임 교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부끄러움 따름이다. 그동안 내가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즐거웠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이번에 가르치는 아이들은 5, 6세다. 지금껏 항상 6, 7 세만 맡다보니 사실 5살이 두렵고 떨리긴 하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 반 아이들은 내가 돌보지 않는다. 그동안 나오는 아이들을 잘 보고 친해져야겠다. 애고, 시간이 많이 늦었군. 빨리 자야겠다. 새로 간 곳에서 지각하면 안되지..

2005년 3월 7일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오늘 첫 수업이었다. 그냥 아이들 이름 다 외우고 나와 아이들 모두 교

실에서 적응하도록 자유롭게 지냈다. 정신을 바짝 차리니 힘이 나서 아이들과 뽀글다보니 하루가 다 갔다. 집에 들어오니 역시나 파김치... 어제 그제는 청소하느라 선생님들과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가. 토요일에 합숙을 하고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 교회 갔다가 다시 와서 청소 하길 몇시간... 교실 복도 원장실 외에 다른 곳은 정리가 아직 덜 되었다. 오늘이 수업이라 그냥 할 수 있는 곳만 정리하고 다른 곳은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당분간 집에 일찍 못갈 것 같다. 역시 나는 일복이 많은 것 같다. 재물 복, 사람 복, 예쁜 복 복도 많은데 왜 하필 일복이나.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나보다. 좀 연단 받으면 큰 사람 될 것 같으신가보다.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이니 믿어보자. 후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 심정.

2005년 3월 17일

원장님이 임용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걸린단다. 내가 아동가족학과를 나와서 유사과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98년 이후 졸업생이라 실습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단다. 졸업한 뒤에 연락한번 안 드린 실습지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니.. 너무 민망하다. 실습한지 7년은 된 것 같은데... 학교에 가는 건 또 어쩔고, 나는 그나마 학교라도 가까워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자격증 받을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단데 나는 이 짓을 또 해야 하나? 옥~~~ 싫어! ~~~

공사 끝나고 어린이집이 너무 어수선하고 아이들도 방방 뜨는데 내일 다른 반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올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다. 에이, 신경질 난다.

2005년 3월 18일

어린이집 실습증명서 받으러 **어린이집에 다녀왔다. 실습을 잘 했다고 나보고 그 어린이집에 오라고 했었지. 거절한 게 좀 쟁겨서 어제 전화도 대충했는데 원장님이 먼저 목소리를 알아들어서 백만 배 더 쟁겼다. 사람이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하나보다. 오늘 만난 원장 선생님은 그대로시다. 자상하고 잘해주셨다. 그래, 이런 일 있으니까 얼굴 한번 뽀는거지. 이렇게 생각하자.

후후후, 증명서를 받아들이고 학교에 다녀왔다. 학교는 여전히 평화롭고 좋다. 내가 다시 학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왔다.

현장에 나와 있으면서 늘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교수님들에게 "이제 올해는 대학원 갈게요"라고 말한 지 벌써 3년째인가? 교수님도 이제는 "너 더 늦으면 머리 굳어서 공부 못한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리셨다. 그래, 공부 한번 해 보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토익

책만 잡으면 왜 잠이 오는 건지, 전공이 뭐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보육교사들이 쓰는 단어 수는 아이들이 쓰는 단어 수 수준이 따라간다고 했던가? 교수님 방에 꽂힌 수많은 전공서적을 보면서 내가 어찌 저 많은 것들을 공부했던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굳어서라도 대학원 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어영부영 한해를 보내면 올해도 또 못가는 거지.

호호호...

교수님 머릿속의 성봉이는 "똑똑한 학생"인데 현실은 어리버리한 신졸같은 6년차 교사라니... 이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오~

2005년 3월 21일

옆 반 선생님이 병가로 한 달 간 어린이집을 쉬게 되었다. 발바닥의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하나 아래로 내려앉아 장시간 서 있는 것, 활동하는 것이 어렵단다. 옆 반은 큰 반이라 낮잠도 자지 않는데, 그동안 힘들었겠다. 같은 보육교사로서 우리 반 일도 다 못 챙기는 상황에서 그냥 미안한 마음만 들뿐이다.

절뚝이며 일을 하고 있는 샘에게 병원에서 뭐라냐고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은 이게 바로 어른들이 말하는 골병이라고 했다고 한다.

헉, 정말 적나라하다. 그래,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란 게 하루 종일 서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청소하고 골병들만 하지. 하지만 나보다 세 살이나 어린 선생님의 건강이 이렇게 안 좋다니! 너무나 안쓰럽고 나도 건강 좀 생각해야지. 하는 염려가 든다. 나도 지난주 내내 한의원에서 허리에 침을 맞지 않았던가...

잠시 숙연해 지기까지 한다. .. 후후.

바쁘(but)! 샘이 쉬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온다. 우리가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샘이 쉬는 동안 훌륭한 대체교사도 온다. 힘을 내어보자.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직은 버벅 대는 해님 반 교사지만 내가 맡은 일이라도 잘 해보자. 그러면 서로 서로 더 이상 어렵진 않겠지. 파이팅이닷!

좌충우돌 늦각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제5탄 화려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예은이에게 어디한번 꼭 빠져봅시다!!

김수연 · 회원

9월 8일(수)

예은이 감기가 더 심해진 것 같다. 소아과에 가니 약을 지어준다. 내성만 기르는 것 같아 먹고 싶지 않은 심정과 그러다가 애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오간다. 우선 배사다가 배즙을 내서 먹여보다가 혹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약을 먹이리라 다짐해본다. 예은이가 한참을 보채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잠든 사이 옷장정리 하고 있으려니 예은이 막내고모가 왔다. 수요일에 배 자주 탄(?)생각이 들지만 가길 잘했다.

9월 11일(토)

아침 8시 무렵 예은아빠가 왔다. 밤새 걱정하고 화나고 전화하고 기다렸는데 회사일이 많이 힘든가보다. 화도 못 내고 비유를 맞춘다. 피곤함과 슬기운에 꿀아떨어진 당신이지만 옆에 있으니 좋다. 수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아침에 왔으니~ 꼭 재웠다 마음껏 자도록. 예은아빠가 예은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점점 자기를 닮아간다며 웃는다. 자기가 코만 빼면 잘 생긴 얼굴이라나~ ???

9월 12일(일)

예배마치고 오는 길!

예은이를 영복씨가 앞으로 메고 왔다. 오랜만에 예은아빠 팔에 매달려 흥분하게 걸으니 온 세상이 내꺼 같다. 임신했을 때는 뱃속에 예은이가 있었고 출산 후엔 띠로 안고 다녔기에 항상 앞이 무거웠다. 이렇게 몸이 가볍다니 날아갈 것만 같다. 그리고~ 임신 전 입었던 바지가 이제야 맞는다. 야호~ 예은





● 아빠와 놀기

아빠가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10월 3일(일)

예은이 외갓집인 거제도에 다녀온 후 예은이가 갑자기 옆으로 몇 번 구르더니 이내 기기 시작한다. 놀란다. 156일째 날 기기 시작!

10월 5일(화)

배밀이가 엄청 빨라지면서 자기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덕분에 이것저것 치우기가 바쁘다. 바닥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 예은이 손에 잡히기 전에 엄마에 의해 올려지고 있다. 자기 장난감은 별 관심 없다. 오전엔 홈메트 혼증기를 만져서 약간 데었다.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 그동안 미뤄왔던 이유식을 시작했다. 소꿉놀이하듯 작은 그릇에 담아내니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낸 기분이 든다. 호호호!!!

10월 11일(월)

우리 예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첫 번째 TV리모콘, 두 번째 엄마핸드폰, 세 번째 물티슈 통 후~ 손살갈다. 어찌나 빠른지 두리번거리다 목표물이 포착되면 곧장 질주해서 움켜쥔 뒤에 어김없이 입속에 넣고 맛있게 빨다.

10월 14일(목)

썩썩이에서 발도르프 인형만들기 모임을 한다.

안경자생이 가르쳐주시고 숙자생과 보경생도 같이 배우게 되었다. 장시간의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열심히해서 예은이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나저나 우리 예은이를 데리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예은이가 아빠를 기다리는지 도통 잠을 못 잔다. 급기야는 나에게 뽀뽀도 맞았다. 그래서인지 새벽녘 흐느끼며 우는데 마음이 아팠다.

10월 15일(금)

예은이에게 하루 종일 미안해했다. 이 녀석 단단히 껴챘는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더니 한참 만에야 나의 재롱(?)에 웃음을 던진다.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가 어제는 너무 피곤했나봐~

10월 25일

앉아서 놀던 예은이가 앞으로 쿵~ 넘어졌다. 눈물에 콧물에 침까지 흘리며 울어댄다. 미안타

~ 딸! 앞으로 넘어질지는 몰랐지~:: 예은이가 젖이 모자란지 요즘 들어 부쩍 밤에 자주 깨서 젖을 찾는다. 이유식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호호 그리고 예은이 아랫니가 드디어 하얗게 쏘아나고 있다. 넘 이쁘다~ 덕분에 침은 질질 뿜든지 입에 넣고 씹어댄다. 근질거리나보다. 178일째 날 아랫니 나오기 시작!!

11월 5일

누워서 먹이지 않기 시도 시작! 목욕시키고 안아서 꾸꾸 먹이고 잠이 들락말락해서 자리에 내려놓으니 깨서 운다. 그래도 무시하고 동시 읽어주며 노래해주니 깨서 논다~. 다시 꾸꾸주고 잠들락해서 내려놓으니 쿵쿵 잔다. 어젯밤 꾸꾸를 찾아서 한동안 안주고 울렸더니 마음이 잔하다. 하지만 이제 밤중수유를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유시간도 규칙적으로 해야겠다. 아무 때나 꾸꾸를 찾으니까 말이다. 잘 하고 있는건지 예은이가 잘 따라와 줘야 할 터인데~ 안방이 이제 제법 꾸며졌다. 예은이처럼 기어다니는 눈높이에 별로 볼 게 없다 이쁜 그림이라도 붙여줘야 할 듯~

11월 8일

예은이가 무척 컸다. 아랫니도 제법 하얗게 돌아났다. 이제 상체도 제법 높이 든다. 앞드려뻥쳐 자세다. 기기 전 자세인 듯. '엄마' 소리도 제법 내고 '아빠' 소리도 비슷하게 내기 시작했다. 열심히 기어 다닌 덕분에인지 엄지발가락의 바닥 닿는 부분이 새빨개지면서 살갗이 벗겨지고 있다. 어떻게 해줘야 하지?

11월 13일

엄마가 TV 보는 동안 기저귀포장비닐가지고 놀던 예은이 분명 알아서 내 허벅지를 빨고 있었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아! 글썽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기저귀포장비닐 흔들면서 말이다. 드디어 혼자 앉는데 성공했구나! 폴라로이드로 기념사진 찰칵! 믿겨지지 않았다. 내가 앉혀놓곤 잊어버린거 아닌가? 한번 더 해봐? 예은아! 또 앉는 모습 놓칠까 예은이만 주시하는데 드디어 앉는 모습 포착! 기록하고 대견하다. 박 예은 만세다 만세!! 197일째 날 혼자앉기 성공



● 사랑하는 예은이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가 심영 선생님

류지민 · 우리네기획팀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생기 있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단아한 생활한복 차림의 여자분이 서 계셨다.

심영 선생님, 북한산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천주교 환경여성바람 레헬름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학교에서 자원봉사로 환경 교육을 하는 활동가이다. 그래서일까. 그분에게선 생생하고 활기찬 봄바람 향기가 난다.

조용한 커피숍, 유자차 한잔과 함께 마주 앉아 자원봉사활동가에게라면 누구나 물어볼 만한 질문을 건넸다.

“계기는……. 훗~ 환경단체에서 있다보니 자연스레 하게 되었어요. 주로 어른들 대상으로 먹거리 수업을 했지요. 2002년 한국보육교사회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지금처럼 하는 자원봉사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육교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였고, 대상도 부모님들이 아닌 아이들이더군요. 사전에 얘기가 충분히 안되어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한미 어린이집 아이들과의 수업은 정말 보람찼단다. 월 1회, 30분하는 수업이지만 아이들도, 교사들도 아주 좋아했다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한번은 아이들에게 색소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수업 이후로 슈퍼에 가면 과자 뒷면에 꼭 색소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직 글자를 못 읽으니까 누나한테 물어서 무슨 무슨 색소가 들어있는지, 몸에 나쁜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본다고 하더군요.”

어린이집을 자원봉사하면서 선생님의 바람이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주 1회 정도는 간식으로 자연식을 해줬으면 하는 거다. 당근이나 오이를 그대로 썰어 준 다는지, 주스로 갈아 준 다는지, 가공 식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를 제공해줬으면 한다. 더불어 교재 만들 때 쓰이는 본드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안했으면 한다고.

심영 선생님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갖는 어려움은 없지만, 다양한 교수 방법 개

발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아이들과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것저것 교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수업 방식을 제시 하고픈데 시간이 짧다보니 그냥 주입식 교육이 되어버리고 만다.

“교사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수업이 달라져요. 그 시간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곳은 아이들의 생활뿐 아니라 어린이집 전부에 변화가 오죠. 하지만 교사가 제대로 참여를 안 하거나 아예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수업으로만 끝나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생협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고, 유기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선생님. 예전엔 생협에서 일한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레 생협이란 말을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어 좋다고 한다.

백백이 일정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며 “한 달에 설 틈이 없어요. 매일 수업에다, 회의에다, 정신이 없지요. 이렇게 여유를 가져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끔 집에 늦게 들어 올 때, 자기들끼리 놀고 밥 먹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다고 한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선생님.

“자원봉사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꼭~ 할 생각이예요.”

심영 선생님은 아무래도 너무 멋진 분이다.

심영선생님



심영 선생님



1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회의진행

한국보육교사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이후 조직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을 2005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전망팀 논의 단위로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9일 제1차 전망팀 회의를 가지고 이윤경 전공동대표와 함께 한국보육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현 시기 우리 회의 조직을 진단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망팀 논의는 매월1회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회의는 5월21일에 있습니다.

2

보육운동10년 정리팀 회의진행

1995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자료집 발간후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우리 회 활동 10년을 맞이하며, 보육운동10년 정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10년활동 정리팀은 박정애 전 조직부장, 황미혜 전 간사, 이강선주 현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15일 1차회의에 이어 5월 10일 3차 회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10년활동 정리팀 12월 발간을 목표로 월2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2006년도 신규 또는 증액해야 할 여성부 예산 요구내용 제출

한국보육교사회는 여성연합, 새우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함께 2006년도 여성부 예산요구안을 작성 4월21일 제출하였다.

이 중 보육관련 예산요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보육 : 157,694,50천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예산

(1)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필요성

가. 여성부가 4월 13일 발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나. 2004년 6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25,319개소 중 1344개소(5.3%)로 그 비중이 매우 적다.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60%를 육박하고 있어 보육시설 기반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상태이다. 2005년 여성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500개소(*239,250천원*40%=47,850,000천원)신축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전담시설을 30개소(*287,100천원*40%=3,445,200천원)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증가추세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다.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00개씩 3,000개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저소득층 지역이나 국공립시설이 전혀 없는 면, 동부터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이나 규모도 다양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신축 또는 기존 시설 인수, 100평 미만의 규모도 지역의 보육수요에 조응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 2005년 여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10% 이상 하향조정하면서, 보육료 단가를 16% 이상 인상 조정하였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화는 아동복지지원의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이 공공서비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비용인 인건비 등을 부모의 보육료에 전액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설치 유형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과



같이 사적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면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 보육실현을 위해 여성부는 보육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인건비 등의 기본운영비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조정 방식의 원칙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 소요예산 : 95,700,000천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인수 : 239,250천원 × 1,000개소 × 40%

(2)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 필요성

가. 여성부가 4월 13일 발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이 육아지원정책으로 가장 원하는 것 중 1순위는 자녀양육비용 지원(44.8%)으로 나타났다.

나. 2005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41만명에게 가구소득별 4단계로 나누어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85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양육부담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다면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우선 2006년부터 만 5세아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만 0세~4세까지 아동에 대해서는 도시평균소득 80%이하 가구에 대해 5층으로 나누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2007년에는 도시평균소득 가구 전부에 대해 5층으로 나누어 지원하되 100% 지원 아동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 소요예산

▷ 만 0세~4세까지 가구소득을 5층으로 분류해 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보육료 지원대상 전면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비형식 보육까지 확대)

▷ 비형식 영아보육비용 지원(정부지원단가 기준)

(3) 보육교사 처우개선

○ 필요성

가. 여성부가 4월 13일 발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는 80-

99만원이 27.7%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79만원 이하 25.7%, 100~119만원은 22.7%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일일 근무시간은 10.05시간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의 72.2%가 현 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특히 1년 미만은 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유아를 직접 보살피는 보육교사의 질과 근무환경은 보육의 질, 즉 아동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일일 근무시간이 10.0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장시간 근무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준비시간이나 재교육, 휴식을 가질 수 없게 하여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민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공공서비스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과근로수당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

다. 보육교사의 업무는 영유아를 돌보는 직접 서비스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대체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모성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선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출산율은 가임여성 평균출산율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였다.

○ 소요예산 : 61,994,520천원

▷ 초과근로수당 소요예산 및 근거 : 44,579,520천원

: 3시간 × 4,000원 × 4주 × 12개월 × 77,395명(전국보육교사수, 2004년 12월 현재)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 17,415,000천원

: 출산휴가대체인력지원 : 7,740명(가임교사 중 10%) × 25,000원 × 90일

말아톤, 초원이야 남들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이경아 · 여성학자

영화 말아톤이 관객 500만을 돌파했다. 내노라는 스타가 출연하는 영화도 아니고, 액션이나 코미디 장르도 아니며, 하다못해 키스 씬도 하나 없는 영화가 예상치 못한 흥행 기록을 세운 셈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영화에서 발견하는 매력은 다 다를 것이지만, 내가 본 영화 말아톤의 매력 포인트는 이 영화가 삶에 대해서 매우 성찰적인 자기 기획을 해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쿨한 개인을 그려내는 방식에 있었다. 오늘은 기존의 모성 담론과 장애인 담론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해내는 말아톤식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영화는 초원이야가 자폐증 판정을 받고 그 사실을 엄마인 경숙이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생물학적인 엄마란 자기 몸에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니 자기가 낳은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참 힘든 일일 것이다. 자식의 결함은 바로 엄마의 결함으로 등치되는 모성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급기야 경숙은 가족나들이를 나간 어느 놀이공원에서 초원의 손을 스크르 놓고 만다. 순간적이지만 초원의 엄마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 순간 간절하게 놓았던 아이를 찾아다니다 초원이를 발견한 경숙은 다시 초원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인다. 이 순간 경숙에게 초원이는 그냥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하는 숙명으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아이로 새롭게 의미화 되는 것이다. 영화 바람난 가족의 대사를 빌자면, 이 순간에 초원이는 경숙의 '배 아파 낳은 자식'에서 '가슴 아파 낳은 자식'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을 매우 의미심장한 새로운 모성 코드로 읽었다. 초원의 경우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좀 더 극적인 요소가 있긴 했지만, 사실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과정은 아니다. 아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매우 주의 깊은 반응성을 익히고, 자신의 생활과 인생관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나가는 대단히 윤리적인 자기 결정의 과정을 동반하지 않는 엄마되기 과정은 없다. 말아톤의 경숙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 대단히 성찰적인 자기 기획의 과정이라는 점을, 기존의 모성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엄마들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감동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런데 경숙의 독특한 초원이야 엄마되기 프로젝트의 주제는 초원이야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마라톤. 초원이야가 마라톤을 할 때만큼은 남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약한 초원에게 경숙의 '다르지 않음'에 대한 요구는 몇 가지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초원이야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숙은 '다르지 않기'를 포기하고 초원을 자폐인만을 위한 단순 작업장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나 초원은 더 이상 다른 자폐아들과도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 다른 자폐아들과는 다르게 초원은 단순 작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다시 바람을 맞으면 뛰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실내에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고 달리고 있는 자신을 느끼는 초원의 모습을 나는 참 아름답게 보았다. 초원이는 이미 남들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자기 자신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온전히 자기 자신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했던 경숙의 엄마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의 엄마로서 같이 기뻐하기도 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엄마 혹은 아빠, 아들 혹은 딸, 며느리나 사위,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의 역할을 기꺼이 떠맡는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표현과 자기 기획을 숨막히게 하지 않는 그런 유연하고 열려있는 역할의 문법을 필요로 한다. 영화 말아톤의 흥행 성공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대한 무의식적인 승인이 아닐지...

-이 글은 저자가 <생활과 행동>제54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어린이집의 CCTV, 무엇이 문제일까?

김지희 · 전국보육노조 교육선전국장

지난 4월 18일부터 개최되었던 경기도의회에서 황당한 추정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제목은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으로, 한마디로 경기도내 몇몇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을 제출한 경기도청에 의하면 이 사업은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결국 인권 침해와 노동자 감시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서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어린이집 CCTV 설치의 문제는 무엇일까?

CCTV는 인권을 침해한다.

CCTV를 설치하면 누가 관찰하고, 누가 관찰될까?

주로 부모와 원장, CCTV 업체가 관찰하고, 아이들과 교사가 관찰될 것이다.

경기도청은 이번 CCTV 설치에 관하여 몇몇 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힌바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과연 아이들과 교사들의 요구도 있었을까?

아이들과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매우 중요한 주체들 중 하나이며, 아이들과 교사가 없다면 어린이집 역시 존재 불가능하다. 그러나 CCTV는 이렇게 소중한 주체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단순한 보육현장의 관찰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다. 또한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아이들과 교사는 몸가짐이나 대화 등 스스로의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혹시나 부모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 아이가 노는 모습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고 있다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거나 안심될지 모른다. 그러나 내 아이가 노는 모습은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화면은 같은 반의 다른 부모들이, 원장이, 때로는 CCTV업체직원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기분 좋은 일인가?

예를 들어 내 아이에게 평소 숨기고 싶었던 병력이라도 있다면 어떨까? 아이의 행동 하나나 약 봉지 하나로 그야말로 내 아이의 사생활은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또한 CCTV는 녹화와 반복 재생, 복사가 가능한 전자기기이다. 어린이집같이 개인정보관리 능력이 취약해 보이는 곳에서 기록되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의 하루일과라는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혹여 외부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듯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내지는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자신의 정보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정보 노출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남의 손에 고스란히 맡기게 되는 일이야말로 심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CCTV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CCTV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 CCTV는 관찰을 위한 도구이지 예방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만약 안전사고 예방을 원한다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구를 점검하고, 각종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하고, 문과 창문, 계단을 살펴보고, 소방도구를 구비하는 등 그야말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CCTV를 통해 어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CCTV를 살펴보면 사람이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적었듯이 CCTV안에는 슈퍼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 아이들이 성실하고 안전한 보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CCTV는 교사를 감시한다.

실제 CCTV가 설치되면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주로 사무실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많은 원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노동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례로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원장이 반에 설치된 CCTV를 원장실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수시로 교실에 들락날락거리고, 반 활동의 진행 흐름을 깨고, 욕을 하는 등 교사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율적 반 운영권을 침해하고 인간적 모욕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또한 CCTV는 특정부위만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내용을 편집할 수 있어, CCTV 관리자에 의해 교사의 노동활동이 왜곡되어지거나 협박,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보육현장의 신뢰성은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높다. 국공립시설 확충은 먼 나라 이야기와 같고, 그나마 제대로 운영하고 있던 국공립 보육시설마저도 무늬뿐인 국공립이라는 허울 속에서, 국가기관의 줄어든 시설 지원체계 속에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경기도청 CCTV 설치 추진과 같은 계획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저급한 의식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육의 공공성에 앞장서야 할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저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보육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어도, 인권과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외부세력에 의해 보육현장은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보육인들은 앞으로 꾸준히 아동과 보육인들의 진정한 인권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이어나가는 한편, 지역자치단체를 비롯한 보육관계부처가 보육의 공공성에 제대로 복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일문판

보육교사아동인권 감수성 키우기 워크숍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보육시설 내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인권 감수성키우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 시: 2005년6월 17일(금) 밤9시 -19일(일) 오전 12시 /2박 6식

○장 소: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

○대 상: 현직 보육교사 60명

○주 최: 한국보육교사회

○후 원: 여성부

○참가비: 참가비:2만원(회원1만원) 아동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아동 동반가능, 육아도우미와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 02-362-8577

○신청방법:

1-참가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전화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2-신청서제출방법

메일 kcta-2@jinbo.net / 팩스 0505-362-8569

우편 (120-012)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의집2층 한국보육교사회

3-신청서 접수 후 확인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받으신 후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가비 입금처 국민은행 347801-04-001141 한국보육교사회

- 아동과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교구 개발
- 아동과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개발
- 보육시설내 아동인권성을 역할극으로 꾸미기
-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퀴즈 만들기

보육교사아동인권 감수성 키우기 워크숍 신청서					
참석자명		주소			
개인연락처		담당연령	주민번호		
총근무경력	년	입금자명	입금예정일		
근무시설명		주소			
시설연락처		시설규모	설치유형	국공립()민립()	
동반아동	유()/무()	아동명	주민번호		
아동인권감수성키우기 I 분반 강연 택1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의 건강권 □대중매체와 아동 ☞ 안내말씀 1-참가자와 동반아동의 주민번호는 보험가입을 위해 쓰입니다. 2-참가자의 근무경력과 담당연령 시설규모 등은 모둠활동을 위한 모듬구성을 위해 쓰입니다. 신청일 : 2005년 월 일 신청자 :					

보육교사아동인권 감수성 키우기 워크숍 프로그램

○마음과 눈을 열어 보아요

○어린 나와 만나는 시간

○전체강연 <아동권리협약에서 나타나는 어린이 인권>

: 이재연(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아동권리학회장)

○아동인권 감수성 키우기 I (분반강연)

1.아동의 놀 권리의 측면에서 본 보육시설의 일과구성(아동권리협약 31조)

: 조선경(한국보육교사회 교육위원/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2.아동의 건강권측면에서 본 보육시설 환경구성(아동권리협약 24조)

: 김미진(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3.대중매체와 아동(아동권리협약 17조)

: 이정주(서울YMCA 어린이 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팀장)

• 분반 강연은 신청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반은 선착순 25명입니다.

○아동인권 감수성 키우기 II (워크숍)

: 서정은(한국보육교사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1.우리나라의 아이

2.어린이집 속의 아이

3.보육교사인 나와 아이

○모듬활동

—유엔인권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육시설 아동상황에 대한 진정서 작성하기

—아동인권상황을 널리 알리는 4칸 만화그리기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시 짓기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보육교사가 지켜야할 실천지침 만들기

—아동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재교구 개발

—아동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개발

—보육시설안의 아동인권상황 역할극으로 꾸미기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퀴즈 만들기

스승의 날 선물어때요?

5월은 어린이의 달이며,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1년365일 동안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추천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활동의 길잡이우리네아이들을 구독하실 수 있는 자료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네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의 인권보장 및 보육권리 실현을 위한 보육활동을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회비는 연간 4만원(6회 발행)입니다. 스승의 날..우리 아이들의 선생님께 우리네아이들 정기구독권을 선물하세요.

정기구독신청서를 메일(kdta@chol.com)과 팩스(0505-362-8569)로 보내주시고 정기구독료를 입금(국민은행 347801-04-001141 한국보육교사회)해주시면,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와 함께 정성껏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네아이들 정기구독신청서			
신청자명		신청자연락처	수령자연락처
수령자명		수령자주소	
입금자명		입금예정일	비고
*수령자에게 전하실 말씀			

보육활동상담을 개시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상담실에 [보육활동상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겪는 매일을 어려움을 모두 함께 나누고 지혜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회 교육위원님과 경험 많은 회원님들이 IP로 활동하시면서 보육현장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한국보육교사회 메일링리스트에 등록하세요.

아직 모르시나요?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로 접속하시면, 초기화면 오른쪽하단에 메일링리스트 가입이 있습니다. 자주쓰는 메일주소를 등록해 주시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알려드리는 보육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을 아시나요?

아름다운재단과 NHN이 인터넷 공간에 나눔의 공간, 기부자(네티즌)와 공익단체가 상시적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 공간인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Happy Bean)을 만듭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이사업에 동참하면서 해피빈내에 해피로그라는 공간을 만들어 활동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아동인권과 보육의 공공성에 관심을 갖는 소액기부자들에게 우리의 활동 내용을 전달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및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해피빈은 5월말 오픈 예정입니다.

보육계 동향

1. 방과후 아동보육, 통합적인 정책 시행 요구

5월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개월여 동안 학령기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온 현장 실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 입법을 준비해온 노력의 결과물로서 가칭 '학령기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학령기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자료 전문은 한국여성단체연합홈페이지에서 <http://www.women21.or.kr> 볼 수 있다.

2. 보육의 공공성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회 열려

5월2일 참여자치지연대의 주최로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공공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종해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서비스의 기본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해 전체 보육시설중 25% 또는 전체 보육아동중 50%이상을 국공립시설이 담당하기 위해 2008년까지 매년 6백여개소에서 1천여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자료 전문은 인터넷참여연대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 볼 수 있다.

3. 국가재정,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키로

정부 재원배분 회의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국가 지원이 필요한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하고, 지원방식도 무차별적인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므로써 이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원 배분의 3대 중점 분야와 12대 원칙에 합

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배분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재정을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 수요 충족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재정이 말아왔던 분야 중 시장에 맡길 것은 시장에 넘기고 남는 재원은 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변 장관은 "이렇게 되면 경제분야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신용보증이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 민간이 역할을 하는 분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국방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국가 재정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이 의료·교육·보육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를 위해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진입장벽을 없애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세 운용 방안, 보육료 지원 방식, 과학기술국채 발행 여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의견이 엇갈렸던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7월 중 재원배분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정석구 기자 twin86@hani.co.kr (출처 5월2일 한겨레)

기획예산처 발표 원문은 <http://www.mpb.go.kr> 에서 볼 수 있다.

4. 여성부, 전국적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부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의 일부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였으며,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54.1%)와 "신뢰가 가서(43.1%)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현재 지출하는 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월평균 비용은 165천원으로 조사대상 가구소득 대비 8.33%이며 보육비용에 대하여는 가구의 61.6%가 부담(매우 부담 14.1%, 부담 47.5%)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들은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취업도 자녀의 42.8%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16.2%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료 전문은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ge.go.kr> 볼 수 있다.

5.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개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 1. 30)에 의하여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사무가 4월25일자로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개시되었다.

신청대상은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공통 구비서류는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신청자와 방문신청자에 한함)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등이며, 자격인정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신청비는 1만원이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문의 02-3157-3461~8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에서 <http://www.ctcm.or.kr> 볼 수 있다.

☞ 소식과 소식

☞ 육아포럼참석

3월15일 육아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보육현장에서 보육노조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월12일 육아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부모조직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여성평화의집 이사회 참석

지난 3월17일 여성평화의집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여성평화의집 이전관련 보고와 이후 여성평화의집 건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회칙자료집 자문

4월1일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발간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회칙 자료집]자문위원회에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우리네아이들 기획팀회의

4월6일 3월호 우리네아이들 평가와 5월호 기획을 위한 기획팀회의가 있었습니다. 류지민, 이성봉 기획팀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예비교사를 위한 정책강좌

4월 13일 20일 27일 사흘간 예비교사를 위한 정책강좌가 있었습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이해"를 주제로 이윤경전국보육노조사무처장이 강의하였습니다. 연인원 2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자원활동으로 수고해주신 박정애, 박인해, 홍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현판식참석

4월22일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현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자격관리검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교육위원회 회의

4월21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 홈페이지 보육상담코너 개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2차 육아지원방안(안) 수요자간담회 참석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육아지원방안(안)에 대한 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보육교사자격관리검정회의

4월29일 보육교사자격관리검정 1차 회의가 여성개발원내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5월3일 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 이강선주사무국장과 서정은 전문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보육정책 내부간담회 참석

5월6일 여성평화의집 회의실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육아지원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내부간담회를 가지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보육료 자율화 도입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주최

5월10일 한국보육교사회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서은희대표가 참석하였다.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 3월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금분입니다.)

〈후원금〉

김아정 5천원 최성미 5천원 서은희 20만원 이윤경 150만원

〈자료회비〉

여성부, 정혜원, 양현주.

〈후원회비〉

박영수 10만원 조인숙 10만원 최순옥 10만원 김숙희 1만원 김은주 1만원
김진명 1만원 서은희 1만원 신아령 1만원 신주영 1만원 신현미 1만원
이미정 1만원 이정님 1만원 장성일 1만원 정승희 1만원 박영미 2만4천원
권성춘 2만원 김경인 2만원 김명미 2만원 김심환 2만원 김영옥 2만원
김영화 2만원 김정윤 2만원 박선하 2만원 박정애 2만원 백선희 2만원

양은희 2만원 오영숙 2만원 오윤정 2만원 이미화 2만원 이준구 2만원
이지수 2만원 장혜자 2만원 전정옥 2만원 정영하 2만원 조선경 2만원
최영신 2만원 하운하 2만원 한만우 3만원 한상원 3만원 김민정 4만원
김수에 4만원 남명자 4만원 안명희 4만원 오경숙 4만원 유희정 4만원
이옥 4만원 이현경 4만원 이희경 4만원 정승희 4만원 주로미 4만원
권혜진 6만원 김종원 6만원 오선영 6만원 김세희 6천원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 3월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금분입니다.)

〈후원금〉

김아정 5천원 최성미 5천원 서은희 20만원 이윤경 150만원

〈자료회비〉

여성부, 정혜원, 양현주.

〈후원회비〉

박영수 10만원 조인숙 10만원 최순옥 10만원 김숙희 1만원 김은주 1만원
김진명 1만원 서은희 1만원 신아령 1만원 신주영 1만원 신현미 1만원
이미정 1만원 이정님 1만원 장성일 1만원 정승희 1만원 박영미 2만4천원
권성춘 2만원 김경인 2만원 김명미 2만원 김심환 2만원 김영옥 2만원
김영화 2만원 김정윤 2만원 박선하 2만원 박정애 2만원 백선희 2만원



편·집·후·기



온 몸에 머드팩 중...

평동7세반 보육기가 연재중입니다. 여러 어린이
집에서의 다양한 7세반 보육에 대한 관심과 경협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세
요~

이번호부터 3회에 걸쳐 일본 오오사가 성애원의
혼합연령보육이 연재됩니다. 연재를 허락해 주신
성애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호 표지는 씩씩이 어린이집 큰외반 민지입니
다. 표지사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인혜 회원님
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신는 것을 허락해 주신
민지와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호 보육정책은 필자의 사정으로 쉽니다.

벤질거리다가 처음 우리네아이들 기획회의에 참
석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궁
금해요./봉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에서 심영선생님을
취재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아요. 만나고 싶은 분이 있
으시면.. 포옥 연락주세요/류

우리네아이들 발간 일을 월초로 맞추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호처럼 모든 필진이
제시간에 원고를 맞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
금 늦고야 말았습니다. - -; 너른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교 사 선 언 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면.....

- ◆ 매월 1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 연6회 발행하는 [우리네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구입 시 2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면.....

-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347801-04-001141 한국보육교사회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505-362-8568)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505-362-8568